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주요증상

발열

폐렴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



위험요인

중국 방문 후
증상 발현

중국 방문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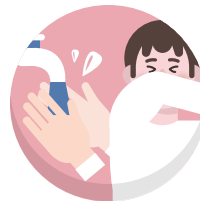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동물
접촉 금지



발열, 호흡기증상자와의
기침, 인후통 등
접촉 금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중국 방문 후, 증상*발생 시

*주요증상: 폐렴,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특히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게시일 : 2020.1.29.

행복한 교육

행복한 교육 2020년 2월 특별기획 기초학력 보장으로 교육격차 해소



Vol. 451. 202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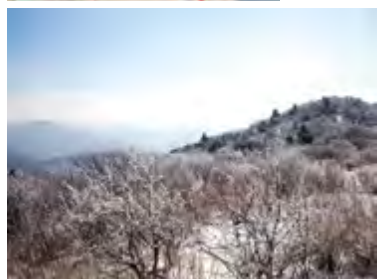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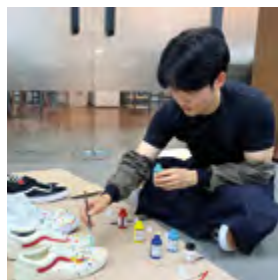


기초학력 보장으로 교육격차 해소
저작권① 수업자료로 만든 교사의 창작물
만18세 선거권 갖게 된 청소년들

Story

FEBRUARY 2020 Vol. 451

04



22



COVER STORY

겨울방학을 맞은 전남의 부산초등학교 아이들이 삼삼오오 학교 놀이터에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사진촬영 문승욱 명예기자



26

34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4

Contents

특별기획

- 02 기초학력 보장으로 교육격차 해소
- 04 교실에서 바라본 기초학력
- 08 두드림학교, 소외된 아이들의 꿈을 두드려다
- 12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 구축 방안
- 16 사·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사업

현장이야기

- 22 꿈이 영그는 현장 학교 교육과정-방과후학교 연계 모델
- 26 삶과 교육 이성남 김천 울곡중학교 교사
- 30 우리교실 프로젝트 경북사대부중 최선경 교사의 '난민 프로젝트'
- 34 아하! 진로체험 친환경 에너지 창작소 '에코 롱롱 큐브'
- 36 창업공방 문찬영 95도씨 대표
- 38 명예기자 리포트 겨울·봄방학 맞이한 선생님 "지금은 연수 중" 외

정책이야기

- 42 정책N전망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미래사회 인재양성의 핵심으로 도약
- 46 감염증 예방을 위한 교육부의 대응 감염증 예방을 위해 다각적 대책 마련
- 48 초점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⑥ 인천광역시교육청
- 50 이슈1 2019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성과발표회
- 53 이슈2 제2차 교육자치 포럼
- 56 대학교육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 58 이슈3 위기상황 속 아이들의 성장 돕는 '교육복지의 힘'

정보이야기

- 62 교육포커스 만18세 선거권 갖게 된 청소년들
- 66 교사상담실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① 수업자료로 만든 교사의 창작물
- 70 교육 소확행 탁 쌤과 산골 학교 아이들의 좌충우돌 한 해 살이
- 72 아이의 다락방 습관적으로 욕하는 명진
- 74 일상의 침표 겨울 도화(桃花)가 꽃 몽우리를 터뜨리고 있는 땅, 발왕산
- 78 뉴스 브리핑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석박사급 인재 연간 19,000명 양성 외
- 80 행복 게시판



기초학력 보장으로 교육격차 해소

1. 교실에서 바라본 기초학력
2. 두드림학교, 소외된 아이들의 꿈을 두드리다
3.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 구축 방안
4. 사·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사업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초학력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기초학력 부진이 시작되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누적된 학습 부진은 더욱 심해지고 '무기력' 등 복합적인 문제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초등 저학년부터 학습 부진이 생기지 않도록 교실-학교-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또한, 학습 부진 학생에게는 전문가 진단을 통해 학습 부진의 원인을 찾고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학습안전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여기서는 교사의 눈으로 보는 기초학력의 문제를 짚어보고, 사·도교육청의 기초학력 향상 사업과 두드림학교 우수사례, 그리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교실에서 바라본 기초학력

조용히 달라진 교실 풍경

사람들은 학교 건물과 운동장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학교는 예전과 같다고 말한다. 그렇다. 학교 밖에서 학교를 바라볼 때, 학교의 모습은 추억 속 장면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교실의 모습은 매우 달라졌다. 위기 속에 있는 아이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며 연구자들은 ‘조용한 위기’가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게 찾아온 위기이기 때문에 아직 사회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두면 얼마 가지 않아 그 사회의 문제가 될 것이며,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에 늦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찾자면 사회·경제적 양극화이다. 심각한 양극화 문제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실의 풍경도 많이 바꾸어 놓았다. 도시의 극빈 가정, 농산어촌의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아마 해당 가정의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교사라면 교실의 풍경이 얼마나

심각한 양극화 문제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실의 풍경도 많이 바꾸어 놓았다.
도시의 극빈 가정, 농산어촌의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바뀌었는지 절감할 것이다. 예전에 나는 이런 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학교를 떠날 때, 여러 동료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고 눈에 아른거려 눈물을 흘렸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어려움에 비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작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만난 가난한 아이들의 모습

이 아이들의 삶은 더 무겁고, 더 어렵다. 어른들 중에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옛날처럼 굶은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시선에서 보면, 잘 사는 가정의 아이들은 놀이동산도 가고 해외여행도 간다고 자랑하지만, 당장 자신은 교통비가 없어 버스타고 타지 못하고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한다. 패밀리 레스토랑도 가보고 싶고 햄버거 세트도 먹고 싶지만, 집에는 당장 먹을 밥도 없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지켜보면 긴 방학 이후 개학을 하면 아이들은 부쩍 성장해 있다. 그리고 방학 동안 살이 통통하게 오른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개학 이후 오히려 바싹 말라서 오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다. 방학 동안 학교 급식조차 못 먹은 것이다. 월요일이면 작은 학교 보건실은 아픈 아이들로 가득하다. 가난한 아이들은 주말 동안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월요일 아침에 학교 보건실을 이용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절대 빈곤에 있는 아이들은 100만 명이 넘는다. 절대 빈곤 아동은 8.9%, 상대적 빈곤은 14.9%나 된다. 18세 미만으로 보면 10명 중 1명이 빈곤 가정이다. 가끔 우리는 뉴스에서 부모의 경제적 파산으로 가족이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한 소식을 접한다. 그 뉴스에 우리들의 어린

아이들이 있다. 이런 뉴스를 보면, 나는 문득 그 학교의 아이들이 생각한다. ‘제발, 아니겠지...’ 눈물이 고인다. 이 아이들은 사실 당장 가정도 어렵지만 또 모두 공부가 어려운 아이들이었다.

사실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혼자였다

예전에는 가난해도 이웃이 있고, 한 동네가 있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단칸방에서 형, 누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생활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 경제적 위기는 가정의 붕괴로 이어진다. 특히, 구조적으로 소득이 낮은 도시 취약계층과 농산어촌 지역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 속에 아이들이 있다. 예전과 다르게 그 아이들은 혼자 있다. 영유아 시절부터 그 속에서 방임된 아이들이 많다. 영유아기 방임은 언어발달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준다. 유명한 Hart와 Risley의 연구에 의하면, 취약계층의 아동은 부유한 계층과 비교하면 단어 수준의 구두 어휘 노출 격차는 만4세가 되면, 3천만 개나 되었다. 이 언어 발달은 이후 본격적인 읽기, 쓰기 학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질적으로 읽기, 쓰기는 말 소리와 문자의 연결이며, 어휘력과 배경지식은 읽기 이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언어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80% 이상은 읽기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어떤 아이가 생각한다

그 아이는 친구들과 자주 싸웠다. 선생님에게도 수시로 화를 냈다. 사실 그 아이는 심각한 위기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충격적으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 공포 속에서 자주 울었던 아이이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특수교육이 꼭 필요한 아이들이 일반교육의 기초학력 미달에 있다.

단계적으로 특수교육의 서비스를 점점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

고학년이 되자 이 아이도 공부에 어려움을 보였다. 또 어떤 아이가 있었다. 아빠가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자, 엄마는 가출하 고야 말했다. 그러자 아이 혼자 집에 남았다. 그 아이는 같은 반 친구 집에서, 동네 교회에서 1주일씩, 2주일씩 돌아가면서 생활했다. 어느 날 아이가 사라졌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자기 집 옷장에 숨어있었다. 왜, 옷장에 숨는지 물어보았다. 아이는 “옷장에 있으면, 그리운 엄마 냄새가 나요.” 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 경제적인 도움과 안전이 우선적이고 일차적인 도움이라면 그 이후에는 아이가 미래를 위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014년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의하면, 가난한 아이들이 국어, 영어, 수학 성적에서 하위 10% 또는 20% 이하에 해당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3~1.8배가량 높았다.

아빠는 독일에 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이 있었다. 명단과 다르게 학생 한 명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내 어머니가 매우 서투른 한국말로 아이의 이름을 말했다. 이제야 나타나지 않았던 아이를 찾았다. 아이는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한다. 같은 반 또래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자 담임 선생님은 그날부터 방과 후에 매일 한국말과 한글을 가르쳤다. 그리고 옆 반 선생님은 책을 읽어주는 유아용 프로그램을 집에서 가지고 왔다. 아이의 사정을 살펴보니, 방과 후에도 혼자 집에서 캄캄한 밤까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안내장을 읽지 못해 돌봄교실을 신청하지 못했다. 그래서 학교의 도움으로 돌봄교실에서 안전하게 어머니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렇게 한

국말도 많이 늘었다. 그 아이의 한국 아버지는 독일에 일하러 갔다는데, 우리는 일 년 동안 아버지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조용히 급격하게 늘어난 다문화 가정

우리 교실에 다문화 가정 학생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33,740명에서 2016년 73,97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국인 거주자는 144만 명이며, 새로 결혼하는 10쌍 중 1쌍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한다. 학교 급별 중에 초등학교 비율이 73%로 가장 높다. 다문화 가정 자녀 중에는 미취학 아동이 45.8%로 초등학교 31%보다 더 높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다문화 가정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5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다문화 중학생의 국어과 미달 비율은 6배 정도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어 교과와 부진은 전 교과목의 부진으로 나타난다. 안타깝게도 다문화 가정은 경제적 빈곤 비율이 높다. 이것은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다. 2014년 통계를 보면, 다문화 부부 6,252쌍이 혼인하고, 3,005쌍이 갈라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으로 절반가량 이혼한 것이다. 그 속에 상처받은 우리들의 아이들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도와야 할까?

이유 있는 학교의 원망

5학년 학생이다. 그 아이는 수업 시간에 계속 잠만 잤다. 책도 잘 읽지 못했다. 물론 기초연산도 힘들어 했다. 나는 그 학생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았는데 지적장애로 나왔다. 예상보다

지적장애 정도가 더 심해서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잠을 잔 이 유가 있었다. 내용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업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지루했을까? 어느 날은 6학년 여학생과 부모님이 찾아왔다. 여학생의 읽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래서 진단을 해 보았는데, 이번 경우는 놀랍게도 지능은 128로 우수했지만 읽기 장애로 나왔다. 읽기 수준이 거의 1~2학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답답했을 그 아이의 아픔을 생각해 보았다. 6학년까지 읽기가 어려웠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내가 활동하는 교사연구회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진단했다.

오늘날 기초학력의 문제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비율은 너무 낮다. 미국과 캐나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전체 학생의 9~10% 정도이다. 덴마크와 핀란드는 더 높다. 반면 우리나라는 1.4%이다. 따라서 8~9%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 비율은 기초학력 미달과 매우 비슷하다. 특수교육이 꼭 필요한 아이들이 일반교육의 기초학력 미달에 있다. 단계적으로 특수교육의 서비스를 점점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 기초학력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선생님과 학교는 원망을 쏟아낸다. 그 원망의 이유는 분명하다. 오늘날 우리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에는 특수교육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일대일 개별화, 결손과 격차가 심화되기 전에 조기 개입, 교사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학적 증거기반의 접근이다. 특히 기초학력에 증거 기반(scientific evidence based prac-

tice) 접근이 부족한 프로그램이 많았다. 미국의 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는 과학적 증거 기반이라는 용어가 100번 이상 등장하고, 캐나다 역시, 어려운 아이를 돕는 정책에는 증거 기반이 부족하면 그 어떠한 예산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꼭 말하고 싶다

아직도 학교 현장에는 이름 없이 그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 이것을 꼭 말하고 싶다. 3년 동안 읽기를 못 했던 아이를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지도해서 성공적으로 읽게 한 경남의 선생님. 계산도 못 하고 읽을 수 없는 아이를 병원 치료까지 받게 하면서, 성공적으로 읽고, 쓰고, 셈하기를 가르친 경기도의 선생님. 농촌에 읽기와 쓰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 매년 힘들어도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는 전북의 선생님. 어려운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해 2학년까지 데리고 올라간 대전의 선생님. 한글교육 책임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10% 이상의 한글 미해득을 1% 이하로 줄인 강원도교육청과 수많은 강원도 곳곳의 선생님들. 제주 아이들은 제주 선생님이 책임진다고 말했던 제주의 선생님들. 교사연구회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인천과 경기 선생님들. 우리 학교에는 어려운 아이도 많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헌신적인 선생님들도 많다. 어느 날, 그동안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환경적 요인도 강하고, 발달적 요인도 강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더 강한 것은 바로 교사의 전문성과 헌신이었다.

이 사실을 꼭 말하고 싶었다. ⑤

두드림학교 우수사례_전남 화순오성초·대구 칠곡중·충북 제천여고

두드림학교, 소외된 아이들의 꿈을 두드리다

“두드림학교는
수업의 관찰자였던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두드림학교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각 운영 학교에서는 학습부진 원인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수·상담·보건·돌봄교사를 포함해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뤄진 협력팀을 구축하고, 학생별 맞춤형 처방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두드림학교 사업을 시작, 해마다 확대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기초학력 향상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두드림학교 운영 학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총 2,720교(초 1,735교, 중 686교, 고 299교)에서 2019년 4,018교(초 2,758교, 중 984교, 고 276교)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총 5,000교 운영을 목표로 한다. 지원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94억 원이 배정됐다. 각 시·도교육청별 전체 학교수와 두드림학교 운영 수요(교육청별 조사에 따른 예상치)를 취합해 예산 범위 내에서 배분되는데, 학교 1곳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참여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난 2018년 초·중등학생 14,4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두드림학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두드림 참여 후 나의 변화(5점 척도)’에 대해 ‘성적을 올리고 싶어짐(4.14)’, ‘공부하는 이유를 알게 됨(4.03)’,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됨(4.02)’ 등의 평가를 받았다.

두드림학교로 선정된 각 학교에서는 학습상담과 코칭, 외부치료, 캠프운영 등 학교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지역, 학교급별 두드림학교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1 화순오성초 두드림학교의 보조강사 협력수업



화순오성초, 보조강사 활용해 학습부진 학생 지원

농촌 지역 작은 학교인 전남 화순오성초등학교(교장 조영래)는 200명이 안 되는 전교생 중 두드림학교 참여 학생은 20명 내외로 많은 편이다. 2018년도부터 두드림학교를 운영해 온 화순오성초는 수업 중 보조강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보조강사는 조력자로서 천천히 배우는 학생의 학습 과정을 관찰하고, 수업 중 과제를 해결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준다.

화순오성초 두드림학교를 담당해 온 신호진 교사는 보조강사 활용이 특히 저학년에서 큰 효과를 본다고 설명했다. 신 교사는 “문자 해득이 느리거나 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멍하니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학습 결손이 누적돼 더 큰 어려움이 생긴다.”라며 “보조강사의 도움을 받으면 단위 차시의 수업 목표를 소화함은 물론 학습에 흥미를 갖게 되어 학생에게도, 담임교사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다.

수업의 관찰자에서 주인공이 된 학생들

신 교사는 5학년 담임교사로서 수학 수업에서 보조강사를 활용했다. 운영 첫해에는 다른 담임교사들의 참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누군가 수업을 지켜본다는 것이 교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일이었던 것. 하지만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다른 교사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고, 자발적으로 보조강사를 활용하려는 교사도

두드림학교, '18년 2,720교→'19년 4,018교로 늘어
교내 협력팀 구축해 학생별 맞춤형 지원
학습 지원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원도

늘어나 10명 중 8명의 담임교사가 참여했다.

신 교사의 경우 두드림학교 학생들을 한 모둠으로 편성해 보조강사가 해당 모둠의 자리에서 함께 수업에 참여했다.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학습 결손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사전에 보조강사와 학생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도록 노력했고, 다행히 학생들도 거부감 없이 참여하며 수업에서 성취감을 드러냈다.”라고 신 교사는 설명했다.

화순오성초는 첫해 3~6학년 학급에만 보조강사를 투입했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2년간 두드림학교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변화를 몸소 느껴왔다는 신 교사는 “두드림학교는 수업의 관찰자였던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었다.”라며 “향후에도 운영을 원하는 학교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돼 지속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천여고, 학습 동기 향상과 자신감 고취에 초점

충북 제천여자고등학교(교장 장석홍)의 두드림학교는 기초학력을 높이기보다는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와 학습 동기와 자신감을 높이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해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두드림학교를 확대하면서 운영을 시작하게 된 제천여고는 비평준화 지역의 공립 일반계 고교로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이에 학교는 학업이나 친구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의

해방구가 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 창작반, 양말 인형 공예, 그림책 테라피, 미술 테라피 등 지난해 진행된 8개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취미활동을 기반으로 직접 구상했다. 한 프로그램당 4명 남짓의 소수로 운영돼 학생들끼리 친밀해지고 교사와의 유대감도 높아지게 했다. 학생 선정은 매뉴얼에 따라 먼저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학생 의견을 묻고 학부모 동의를 구해 진행됐다.

시 창작반·드림아트반 등 소수정원 프로그램으로 정서 지원

최민석(국어) 교사는 지난해 2학년 학생 3명, 3학년 학생 1명과 시 창작반을 운영했다. 학생들이 직접 지은 시를 엮어 시집으로 출판하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나눠주게 했다. 최 교사는 “학업과 관련된 동아리나 방과 후 활동이 아니라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소수정원이다 보니 학생들끼리도 친해졌다.”라고 말했다.

전희정(음악) 교사는 드림아트반을 통해 시 낭송, 중창, 사진찍기, 등산, 영화 감상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학생들과 함께 꿈 찾기를 진행했다. 단순히 일회성 활동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술제와 등반대회에 출전하고 공모전과 연계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등 학생들의 자신감을 키우고 도전 의식을 끌어냈다. 그는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능성을 찾아낸 것이 대회 입상으로까지 이어졌다.”라며 “학생들의 도전과 성취가 지도하는 교사에게도 보람과 감동을 준다.”라고 전했다.

“부적응자 낙인찍기 대신 꿈 찾는 과정으로 인식했으면”

다만 활동 시간 확보가 어려운 것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학생과 교사 간 시간을 협의해 주로 방과후에 모이게 되는데, 고등학생들이라 보니 수업과 외부활동이 많아 시간 확보가 힘들었다는 것. 또, 교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구상하므로 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공립학교이다 보니 교사들의 이동이 있어 프로그램 운영이 유동적인 부분이 있었다.

최민석 교사는 두드림학교 인식 개선에 대한 바람도 전했다. 그는

“두드림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을 부적응자라고 낙인찍기보다, 꿈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식했으면 좋겠다.”

23 제천여고 두드림학교 시 창작반에서 학생들이 만든 시집(위)과 드림아트반의 등반대회 출전 모습(아래)



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칠곡중을 방문해 두드림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5 칠곡중 두드림학교 존조리 읽기 프로그램에서 독후 활동을 준비하는 학생들

“비공개적으로 모집하다 보니 혹시나 학생들이 상처를 받을까 조심스럽고 어려웠다.”라며 “두드림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을 부적응자라고 낙인찍기보다, 보편적인 아이들도 각자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꿈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칠곡중, 독서 습관 지도·사제동행학습 눈길

2017년부터 두드림학교를 운영해온 대구 칠곡중학교(교장 양희숙)는 학습지원, 심리정서지원, 진로지원 등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중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인 존조리 읽기와 사제동행학습은 칠곡중의 특색 프로그램이다.

존조리는 ‘잘 타이르듯이 조리 있고 친절하게’라는 뜻을 가진 우리말로, 이름처럼 학생들은 직접 고른 책을 각자의 속도로 천천히 읽으며 어휘력을 향상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웠다. 지난해 존조리 읽기를 진행한 권민진(국어) 교사는 “학생들이 본인이 정한 책을 읽으며 모르는 단어는 사전 검색이나 주변에 물어보고, 책 속 인물의 행동을 평가하는 등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사제동행학습은 교사와 학생이 멘토와 멘티로서 함께하는 활동으로 신뢰감과 성취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이현우 교감은 지난해 자존감과 사회성을 높이기 위한 미술치료의 일환으로 칠보공예 교실을 개설했다.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소통이 이뤄졌다.

권 교사는 “두드림학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자신을 표현할 기회가 적었는데, 이런 프로그램 통해 여러 선생님과 소통하며 과목별 학습 방법이나 선임자로서의 교사의 경험을 듣고 자신의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칠곡중은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활용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진단검사 및 교사 협의를 통해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㉔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 구축 방안

검증된 교재나 프로그램 확보
이를 잘 적용할 전문성을 갖춘 지도 인력 필요
일정 기간 지속해서 강도 높게, 자주 개입

기초학력 향상은 교사 개인의 노력이나 특정 교수 방법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애초에 기초학력 부진 발생 원인과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현장의 복잡성은 이론과 실제 간 괴리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그동안 여러 사람이 제안한 수많은 지도 방법이나 정책 중 상당수는 학교나 교육 당국이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지금은 기초학력의 개념에 대한 합의도 안 된 상태이다. 이 시점에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를 '깔끔하게' 제시하는 일은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문해력, 수리력 측면에서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 요소와 그 구축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 요소별 구축방안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의 요소로는 크게 조기 진단, 맞춤형 지도, 다중지원팀, 유연한 다단계 지원체제, 증거 기반 지도 방법을 들 수 있다. 각 요소별 중요성과 구축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기 진단

조기 진단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언제, 어느 영역을, 어떻게(즉, 어떤 도구와 방법으로) 진단할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실현 가능하면서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일단, 시기는 늦어도 초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쯤이어야 한다(이대식, 2019). 사실, 음운 인식 수행 정도와 특징은 유치원

시기부터 관찰할 수 있다.

방법 측면에서는 교과학습부진 진단평가처럼 교과별로 20~30개 문항으로 전 단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평가 형태의 진단만으로는 조기 진단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다. 조기 진단을 통해 학생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후 지도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학력검사와 같은 포괄적인 검사 형태로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영역 측면에서는 문해력과 수리력의 필수 하위 요소별로 수행 정도와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읽기 영역이라면 음운 인식, 자모음과 그에 대응하는 소리, 무의미 낱말, 7개 받침소리 등을 포함하여 읽기 각 영역을 꼼꼼하게 진단해야 한다. 이를테면, 기본적인 문해력과 수리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표1]의 영역별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표1] 조기 진단 영역(예시)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읽기	음운 인식	음절 및 음소 인식, 변별, 재생, 대체
	자모음-소리 대응	자음, 모음, 받침소리
	한글 낱글자 읽기	유의미 단어, 무의미 단어, 규칙 및 규칙 음운변동 단어, 단어읽기 유창성
쓰기	읽기 유창성	문장, 문단 읽기 유창성
	어휘	학년별 필수 어휘 이해 정도
	글자 모양 쓰기	글자 쓰기의 속도, 정확성
셈하기	철자하기	규칙 및 불규칙 음운변동 단어 받아쓰기
	수감각	수세기, 수 크기 비교, 가르기와 모으기
	기본적인 사칙연산	단순 연산 유창성

간편 검사 도구를 속히 개발하거나 기존 도구 중 목적에 맞는 도구를 확보하여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모든 학생을 모든 영역에 걸쳐 진단할 필요는 없다. 지원 요구가 드러난 부분, 부진이 의심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진단하면 되고, 평상시 학교 교육 활동의 일부로 수시로, 개별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맞춤형 지도를 위한 교재, 지도 인력, 충실한 개입

맞춤형 지도란, 각 학습자별로 조기 진단 결과 드러난 문해력 및 수리력의 장단점에 근거하여 장점은 활용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식을 뜻한다. 맞춤형 지도를 위해서는 최소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각 학습과제나 내용별 효과가 검증된 교재나 프로그램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어떤 학생이 받침소리가 있는 한글 낱글자 읽기에 어려움을 보인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활동, 자료 등이 담긴 교재가 있어야 한다. 그 교재에는 아마도 어떤 받침소리를, 어떤 예를 사용하여,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떠한 활동을 해가며 가르쳐야 하는지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효과적인 교재가 확보되면 이를 잘 적용할 전문성을 갖춘 지도 인력이 필요하다. 이 인력은 교재를 능숙하게 다루어야 할 뿐 아니라, 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도 인력에게 지도 전 충분하고도 효과적인 연수,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인 재교육 등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전문성을 갖춘 지도 인력의 확보에는 중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현직 교사나 미임용 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 자원자를 선발하여 최소 1개 학기 정도 실습을 병행한 집중 연수를 한다. 연수 종료 후에는 교육청 단위의 센터나 각 거점학교에 배치하여 전담으로 관련 업무를 다루도록 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반학급 내 경계선 및 통합교육 대상 학생 지원 전담 교원을 양성, 배치해야 한다. 이들 전담 교원들은 일종의 부전공이나 심화전공을 이수하게 하거나 교육대학원에 관련 전공을 교육청과 협력하여 개설한 다음, 그곳에서 기초학력 지도, 경계선 및 통합교육대상자 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방식으로 양성할 수 있다.

셋째, 충실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효과적인 교재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일정 기간 지속해서 강도 높게, 자주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 주 3회, 회당 1시간 이상의 개입을 적어도 6개월 이상은 투입해야 한다(이대식, 2019).

3) 다중지원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 환경적 여건 측면에서도 불리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 예컨대, 심리적으로는 누적된 학습결손과 반복된 학업 실패로 낮은 학업 자아개념을 갖고 있다. 가정환경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돌봄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또, 정서·행동 측면에서 상담이나 치료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사안별로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가

학습자가 특정 학습과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도움을 제공하고, 요구가 충족되면 다른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상시 특별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팀을 이루어야 한다.

다중지원팀은 학교별로 기초학력 지도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정규교사를 전담교사로 배치하고 그 팀의 구성원으로 각 분야 전문가(상담사, 복지사, 언어치료사, 기초학력 지원 보조 인력 등)를 포함해야 한다. 만약, 단위학교마다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3~5개 학교를 소집단으로 묶어 구성하고 각 학교에 요구 발생 시마다 파견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전담교사는 업무의 강도와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순환보직제 형태(예컨대, 2년이나 4년마다 연장 혹은 업무 전환 가능)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팀을 구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팀의 역할이다. 각 학습자를 면밀히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협의하며, 제때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4) 유연한 다단계 지원망

기초학력 부진 예방은 정규 수업 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학습자에 대해서는 보조 교사 등을 통해 그때그때 즉각 지원하고, 그래도 충분치 않은 때에는 소집단 집중 지도, 더 심각한 요구가 발생할 때는 개인별 특별지원을 제공한다. 이처럼 최소한 3단계 지원망을 구축하되, 지원은 지원 대상 학생이 필요로 할 때마다 즉시 제공되어야 한다(이대식, 2019). 예컨대, 학습자가 특정 학습과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도움을 제공하고, 요구가 충족되면 다른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상시 특별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교실에 복수의 지원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하지만, 담임교사와의 역할 설정 등 정교한 실행방안

이 먼저 나와야 한다. 또, 학교의 정규 일정 안에서 지원 요구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방과 후에 부진한 학생들만 모아놓고 지도하려 해서는 학부모 동의를 얻기도 어려울뿐더러 학습자들의 학습 의욕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가급적 정규 수업 일정 중 일정한 시간대에 모든 학생이 자신의 수준과 능력, 관심과 적성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원 요구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5) 효과가 입증된 지도 방법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 방법과 관련하여 수많은 제도, 제언, 주장들이 있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구체적인 특정 학습 내용, 과제, 기술을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그 학습자가 학습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거나, 알아도 복잡한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충실하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지식이 있어야만 효과적인 개입 프로그램이나 교재 개발, 인력 양성, 학습 진단도 점검 등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읽기 장애 학생 중에는 받침 있는 글자를 잘 못 읽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지도하려면, 받침이 있는 글자(예컨대, 물건, 쌓고, 넣어, 잊었다 등)는 어떤 순서로, 어떤 활동과 자료를 이용하여, 얼마나 지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수학교 사칙연산 과정에서 오류가 많고 느리다면, 수감각을 키워야 할 터인데, 이때에도 역시 어떤 수감각 요소를, 어떤 순서로, 어떤 활동과 자료를 이용하여, 얼마나 지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의 실천 방법이 필요하다. 첫째, 기초학력 부진 학생 대상 지도 방법이나 프로그램은 무엇이든 기존 이론과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시안을 만든 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친 후 다듬어진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정도의 개발과 적용 연구에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의 WWC(What Works Clearing House) 사이트처럼, 어떤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또 그 근거는 얼마나 확실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제를 갖추어서, 최소한 증거 없는 지도 방법이 유행하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현재 전국 교육청이나 교사 단체, 교사 공동체 모임, 혹은 교사 개인별로는 효과적인 지도 방법에 관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다. 이것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검증한 후, 이를 체계화한 다음 학교 현장에서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효과적인 지도 방법 확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신념 공유

Fullan(2016)은 <학교 개혁은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실행과 성과는 새로운 자료나 프로그램의 활용, 새로운 교수법, 신념 3가지 차원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 맥락에서 이는 곧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과 지도 방법, 그 방법과 자료 및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신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뜻한다.

3가지 중 특히 중요한 것은 학교나 교육행정 기관 구성원들의 신념이다. 기초학력 지원과 관련하여 신념이란, 모든 학습 부진 학생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아야 하고, 또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하면 학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믿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또, 신념이란 그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효과적인 방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적용하여 효과를 맛보고, 이를 지속해서 실천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뜻한다.

교육행정 당국의 지시가 있어야만, 혹은 사업비가 있어야만 그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학생들의 학습에 관심을 갖고 증거 기반 방법들을 찾아 꾸준히 투입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의 핵심 기능은 바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와 태도를 복돋우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갖추는 것이어야 한다. ㉠

※ 참고문헌은 웹진(www.happyedu.moe.go.kr)을 참고하세요



이대식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혹은 교육과정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통합교육학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학습장애학회(187~)을 역임하고 있다. 논문으로 <학습 어려움,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 것인가>, <학습부진 학생 지원 실태에 관한 초등교사의 인식> 등이 있으며, 저서로 학습장애 및 학습부진 학생 지도를 위한 공저 등이 있다.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사업 ‘예방-진단-지원’으로 함께 성장하는 기초학력 보장

공교육 첫 단계부터 기초학력 부진 없앤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최소한의 필요한 기초학력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기초학력 부진이 시작되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누적되어 학습 부진은 더욱 심해지고 ‘무기력’ 등 복합적인 문제에 놓이게 된다.

이에 시·도교육청에서는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학습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학습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학생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학습 부진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개별 학생에 맞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학습 부진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읽기, 쓰기, 그리고 셈하기 교육이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2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집중학년제’를 운영하며, 난독·경계선지능전담팀을 꾸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원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입학 적응기 한글교육과 문해력 향상을 위한 읽기 유창성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다수의 교육청에서 하나의 수업에 2명의 교사가 들어가 학생들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1수업 2교사제’도 도입되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 예비교원과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보조강사로 활용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시·읍 지역에 초1의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내로 제한하여 수업에서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북도교육청은 초1 담임이 초2까지 연임토록 함으로써 연계성을 갖고 초등 저학년 시기에 기초학력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충남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 도입하는 ‘두드림학교’를 모든 초·중학

교로 확대하였으며, 울산시교육청은 ‘느린 학습자 관리카드’를 보급하여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학교급별로 연계하여 지속해서 관리함으로써 학습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진행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3년에 걸쳐 ‘기초-기본-심화’ 3단계를 완성하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 전문가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다양한 기초학력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의 하나로 ‘기초학력의 공교육 책임 강화’를 들고 있다. 1단계 교실, 2단계 학교 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3단계 학교 밖 ‘서울학습도움센터’를 통한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통합 지원하는 3단계 학습안전망을 구축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해 ‘예방-진단-지원’의 체계적인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서 초등 2학년 유레카 프로젝트(학습지원대상 학생이 유레카라고 외치며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고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통합지원 프로젝트)와 연계해 ‘초2 기초학력 보장 집중학년제’를 운영한다. 공립초 2학년 약 830학급이 그 대상이다. ‘1수업 2교사제’ 운영도 15개교(20명)에 확대 지원한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책임지고 지도하는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제를 확대해 나간다. 학습부진 요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위한 다중지원팀을 운영하고, 현장밀착지원을 위한 지역학습

시·도교육청에서는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학습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학습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도움센터를 신설한다. 그 밖에도 난독·경계선지능전담팀을 운영해 다양한 이유로 기초학력 부진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기초학력 책임보장을 목표로 학교-교육청-대학-의료기관과 연계한 3단계 기초학력 진단시스템을 구축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 여건과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기초학력 부진을 해결·예방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 ‘학교’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자체 계획을 통해 정규수업과 방과 후 수업을 통해 개별지도하고 치료기관과 연계하거나 특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친다. 2단계 ‘지역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교육지원청별로 1곳씩 설치해 학습코칭, 학습지도, 학습상담 등을 진행한다. 이때 학습코칭단과 학습멘토 등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역사회 전문가 및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3단계 ‘부산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다요인 학생 중 심층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지속 관리한다. 부산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심리검사, 학생·부모 상담, 학습치료, 사례관리, 동행 지원 등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요인별 전문가와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의료지원 인력풀을 구성해 학생별로 9-10개월 장기적으로 지원한다.

학생 맞춤형 개별지도로 해당 학년에서 갖춰야 할 기초학력을 깨치는 ‘다깨침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초 1-2학년은 한글·

기초수학(180학급의 다깨침 서포터 지원)을, 초 3학년은 3R’s(읽기, 쓰기, 셈하기에 학습 부진 우려가 있는 학생을 담임이 맡아서 지도) 중심으로 지도한다. 초 4학년-고 1학년은 국어, 수학 최소 성취기준을 달성해야 하며 대학생 교사제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초·중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3+4단계 안전지원망을 구축한다. ‘3+4 안전망’이란 3차 진단과 4단계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동안 ‘수업 내-학교 내-학교 밖’ 3단계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부터는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해 4단계 지원망을 구축하였다.

1차 진단은 초3-중3 대상으로 진단 검사, 두뇌 기반 표준화 검사, 담임 관찰 등을 통해 진단한 후 기초학력 보정시스템, 1수업 2교사제, 학습 보조강사 등을 통해 교실 수업 속에서 지원한다. 수업 내 지원만으로 어려운 경우,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두뇌 기반 학생 이해검사, 난독진단검사 등 2차 진단을 하게 된다. 이때 학교 단위 다중지원팀과 맞춤형 지원팀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두뇌 기반 학습코칭을 통해 3단계 지원에 나선다. 학교와 교육청 지원으로 어려운 경우, 학교 밖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진단하고, 진단 요인에 따라 학습 바우처, 난독 바우처와 연계하여 4단계 지원한다.

2008년부터 실시해온 1수업 2교사제도 초·중학교 180교로 확대하고 예비교사를 활용한 학습 보조강사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3 가지 사업을 운영한다. 먼저,

학습장애, 학교 부적응, 무기력 등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두드림학교’와 수업 내 보조교사 지원 사업인 ‘친친쌤’(친구처럼 친절함 쌤)이 있으며, 한글 해득이 더딘 학생들을 조기에 지원해 학습 기본도구인 한글로 인한 학습 부진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글돋움지원’ 사업이 있다.

인천 지역의 초·중·고교는 교당 1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예산 내에서 학교 상황에 맞는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는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 적응력을 강화하고 학습 동기유발을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초1~고1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운영한다.

초등 저학년 학습 부진 예방을 위해 교대생 350명을 보조강사로 활용하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중학생의 방과 후 지도에도 사범대생 80명을 지원한다.

또한, 관내 모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두드림팀(담임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학교 봉사자, 외부 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학습지도, 학습코칭, 치료 연계, 돌봄 연계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그 밖에도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학습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개발한 <한글 또박또박>과 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뚝뚝 글자놀이> 자료를 활용해서 한글 책임교육을 해오고 있다. 교원 대상으로 한글 문해 교육 역량 강화 연수와 읽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진단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기초학력을 갖추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충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찬찬책임교육’을 펼치고 있다.

한글 책임교육 내실화를 위해 한글 문해 교육에 대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 1~2학년 한글 해득 수준 진단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읽기 부진 학생을 조기에 지원한다. 2020년 2월경 <한글이 ‘더’ 쉬워지는 찬찬한글 익힘책>을 개발해 보급하며, 향후 놀이로 배우는 한글학습 자료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 수학능력 및 초등 저학년 ‘셈하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1교1수학체험동아리, 수학체험전·수학탐구대회 등 체험 중심의 수학교육을 활성화한다. 그 밖에도 영어 문해력 향상을 위한 단위학교 입문기 기초영어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초등학교에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캠프 등을 지원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에는 비인지적 측면의 진단-보정을 강화하여 기초학력 부진의 요인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모든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업무 전담교사를 지정해 운영하며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협력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협력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느린 학습자 책임지도제’를 운영한다. 특히 느린 학습

자 관리카드를 보급하여 활용하며 학교 급별로도 연계한다. 이는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맞춤식 지도로 학습 부진을 해소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난독 및 느린 학습자를 위한 지도교사(600명) 연수를

비롯해 난독 학생에 대한 전문검사 및 치료도 함께 진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별 학습 속도 차이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기초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수학 협력교사제’를 운영한다. 초등 3학년을 중심으로 협력교사와 담임교사의 수학과 협력수업을 통해 기초수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3개교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에는 20개교에서 확대 실시한다. 또한, 초등 저학년의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이 정규수업에 투입돼 담임교사를 돕는 ‘기초학력 교육자원봉사자(조이맘)’을 운영한다. 조이맘은 ‘조카를 사랑하는 이모의 마음’의 줄임말로 정규수업에 투입돼 담임교사를 도와 수업 태도 교정,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도한다. 그 밖에도 중등 교과교실제 협력 강사를 활용해 개별 수업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

단위학교 차원의 기초학력 ‘담임책임지도제’를 정착

시켜 나가고 있다.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초학력 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원의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한수위(韓數位) 기초학력 33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 프로젝트는 한글 문해 및 기초수학 매니저 과정 직무연수로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기초-기본-심화 3단계를 완성하는 것으로 일명,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 정책추진단을 구성하고, 도 단위의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출발이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

전국 최초로 2016년부터 ‘학교가 한글 교육을 책임진

다.’라는 비전을 갖고 추진해 온 ‘한글 교육책임제’를 더욱 강화한다. 초등 1학년, 입학 적응기에 한글 교육 30시간을 실시하며, 한글교재도 확대 보급한다. 또한, 문해력 향상을 위한 읽기 유창성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한글 해득 단계 이후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읽기 유창성’은 문해력 및 성취도와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그동안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20학급에서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영어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영어 책임교육은 한 명도 소외되는 학생 없는 재미있는 영어수업과 자기주도학습을 토대로 제공하여 영어학습의 기초를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초등 3~4학년 군은 알파벳, 파닉스, 핵심어휘(250개)를 통해 영어학습을 위한 기초능력을, 초등 5~6학년군은 확장 파닉스, 핵심어휘(500개), 필수 문장을 통해 영어 활용 능력을 키운다.

도 교육청은 2월경 초·중등 영어교사 1,200명을 대상으로 영어 책임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여 현장 교원들과 영어 책임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충청북도교육청

모든 초·중·고교에서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제를 운영한다. 1단계로 학생 개별 맞춤형 교과 교육과정 운영과 2단계, 학교 차원의 ‘다중지원팀’ 구성 운영에 이어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충북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이와 함께 한글 책임교육을 위해 진단 검사, 한글지도도움자료, 학습지원단과 보조교사를 활용한 1대 1 한글 해득 지도 등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두드림 학교’를 전체 초·중학교로 확대 운영한다.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을 위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안팎으로 자원을 협력적으로 지원한다. 14개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며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학습 부진 원인별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도 마을교육공동체와 돌봄교실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협력하여 운영한다.

전라북도교육청 단위학교 기초학력협의체를 통해 진단 검사 및 진단 활동을 하고 학습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맞춤 지원하는 ‘맞춤형 학습지원학교’(430교)를 운영하여 1대 1 학습코칭, 자존감 회복 지원,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올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지원학급(200학급)도 운영한다. 특히, 전주교대 예비교원을 기초학력 보조교사로 활용하며,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수학 수업 중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협력수업을 진행하는 1수업 2교사제(두리교사제)도 시범 운영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교 1학년 단계부터 학습 부진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시·읍 지역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감축한다. 한글 해득의 결정적 시기인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 교육을 책임지고 교육함으로써 기초학력 부진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과밀학급으로 인해 발생했던 학생 개별지도의 어려움과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

도 기대된다. 또한, 초등 문해력·수해력 전담교사 40명도 배치하여 한글 미해득과 수학 포기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문해력·수해력 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사 중에서 희망자를 신청받아 시 지역은 3~4명, 군 지역은 1~2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성장책임학년제’를 운영한다. 성장책임학년제는 한글 책임교육을 위해 1학년 담임교사가 2학년까지 연임하여 지도하는 것으로 배움이 느린 학생을 2년 연속 지도함으로써 연속성을 갖고 학습지도를 할 수 있어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초학력 으뜸학교’와 ‘수학 반올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읽기 중점 으뜸학교’는 읽기 학습이 부진한 초등 1~2학년 학생에게 학습 외에도 읽기 교구, 정서·행동발달, 치료까지 지원한다. ‘수학 반올림 프로그램’은 수학 교과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놀이 교구와 협력교사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학습을 돕는다.

그 밖에도 수업 집중도가 높아지고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1수업 2교사제’도 크게 확대된다. 지난해 100개교에서 1수업 2교사제가 운영되었으며, 올해에는 초·중학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80개 초·중학교에서 1수업 2교사제를 운영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초등 한샘집중학년제’를 운영한다. 초등 저학년의 한글과 셈하기

(기초수학) 교육 강화 조치로 필요한 경우, 수업에 보조교사를 투입한다. 보조교사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글과 기초수학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초등 1~3학년 중 읽기가 곤란한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읽기 오름 어깨동무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등으로 다중지원팀을 이뤄 학습 부진 해결을 위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급-학교-교육청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진단 및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부진 원인과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는 학습 지원 멘토링과 학력 지원 학습코칭을, 경제적 취약 계층 학생에게는 맞춤형 교육복지 및 동지 키움 멘토링을 통해 지원한다. 정서·행동의 어려움을 가진 학생은 임상·심리 지원과 더불어 병·의원과의 연계한다.

또한, 제주도교육청은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하며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한다. 특히 한글 책임교육에 있어서 난독 및 읽기 곤란 학생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읽기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의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위한 지도 방법을 컨설팅하였으며, 언어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언어재활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

시·도 교육청	지원 사업
서울	· 3단계 학습안전망 구축(교실-학교-학교 밖) · 초2 기초학력 보장 집중학년제 실시 · 1수업 2교사제 운영(15개교 20명) · 난독·경계선지능전담팀 운영
부산	· 기초학력 진단시스템 구축(학교-교육청-대학-의료기관 연계) · 기초학력 깨치는 ‘다깨침 프로젝트’ 운영(초1~2 한글·기초수학/ 초3 3R's/ 초4~고1 국어·수학 최소성취기준 달성)
대구	· 3+4단계 안전지원망 구축(3차 진단과 4단계 지원), 두뇌 기반 표준화 검사 도입 · 1수업 2교사제 실시(초·중 180교 확대), 예비교사를 활용한 학습보조강사 제도 실시
인천	· 수업 내 보조교사 지원하는 친친샘(친구처럼 친한 샘) 운영 · 한글 교육을 지원하는 ‘한글돋움’ 지원
광주	· 초1~고1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운영 · 초등 저학년 지도에 교대생(350명), 중학생 방과 후 지도에 사범대생(80명) 보조강사로 활용 · <똑똑 글자놀이> 자체 개발하여 한글 책임교육
대전	· 기초학력 업무 전담교사 및 기초학력 협력교사 배치 · 한글 책임교육 컨설팅 및 초등영어캠프 운영
울산	· 느린 학습자 책임지도제 운영 · 학교급별 연계를 위한 느린 학습자 관리카드 보급
세종	· 초등 기초수학교육 강사를 위한 ‘수학 협력교사제’ 운영 · 기초학력 교육자원봉사자(조이맘) 운영, 중등 교과교실제 협력 강사
경기	· 학교 차원의 기초학력 ‘담임책임지도제’ 운영 · 3년간 기초-기본-심화 3단계 완성하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 전문가 연수’ 운영
강원	· 입학 적응기 한글 교육 30시간 실시 · 문해력 향상을 위한 ‘읽기 유창성 프로젝트’ 운영(20학급) · 한글 교육책임제에 이어 ‘영어책임교육’ 강화
충북	· 모든 초·중·고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 보조교사 활용한 1대 1 한글 해득 지도
충남	· 모든 초·중학교에 두드림학교 운영, 14개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 마을교육 공동체와 돌봄교실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협력 운영
전북	· 맞춤형 학습지원학교 430교, 맞춤형 학습지원학급 200학급 운영 · 전주교대 예비 교원 기초학력 보조교사로 활용, 1수업 2교사제(두리교사제) 시범 운영
전남	· 시·읍 지역 초1 학급당 학생 수 25명으로 감축 · 초등 문해력·수해력 전담교사 40명 배치
경북	· 초1 담임이 2학년까지 연임하여 지도하는 ‘성장책임학년제’ 운영 · 1수업 2교사제 운영(초·중학교 180교)
경남	· 초등 한샘집중학년제 운영(한글, 셈하기 교육 강화) · 초1~3학년 중 읽기 곤란 학생 지원하는 ‘읽기 오름 어깨동무 프로젝트’ 추진
제주	· 학급-학교-교육청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진단·지원 시스템 구축 · 난독 및 읽기 곤란 학생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지원

학교 교육과정-방과후학교 연계 모델

수업과 방과 후 연결, 공교육의 꽃 피운다

초·중·고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정책은 2005년 시범 도입된 이후 지속해서 다양한 모델로 확산하며 전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방과후학교를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교육 효과가 배가된다. 교육과정-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로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고 학교에 활기를 불어넣는 대전자운초등학교와 대구 경서중학교를 소개한다.

대전자운초, '아우름 방과후학교'

대전자운초등학교(교장 성지형)는 우리나라 육·해·공군대학, 육군통신학교, 간호사관학교 등의 군 교육기관이 모여 있는 군사 특수지역인 '자운대' 안에 위치한다. 방과후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강운정 교사는 “학생들이 모두 군인 자녀들로, 군 자녀 특성상 학생들의 전학이 매우 잦은 편”이라며 “많은 학생이 부모를 따라 전방을 비롯해 시골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대전이라는 도시에 근무하는 동안 자녀들이 다양한 교육을 접했으면 하는 부모들의 욕구가 크다.”라고 설명한다.

자운대에는 우리나라 영관급 이상의 군인뿐 아니라 외국군 장교의 수탁교육도 이뤄지는데, 매년 부모를 따라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학생 30여 명이 단기 체류(1년)의 형태로 학교에 머문다. 학생의 전학이 잦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학생이 공존하는 자운초는 '마음을 하나로 아우르는 아우름 방과후학교'를 운영 중이다.

2019 방과후학교 대상을 차지한 자운초는 방과 후 활동을 돌봄교실·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흡수하면서 그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먼저, 자운초는 태권도부, 수영부, 육상부 등 미래의 국가대표를 꿈꾸는 운동부와 사이다리더스(화학 동아리), 하나소리(음악 동아리), 솔리언(또래상담 동아리) 등 다양한 자율동아리, 그리고 언어·논리, 사고·탐구, 예체능 등 19종류의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또한, 잦은 전학으로 진도 차이에 따른 학습결손을 채우지 못한 학생이 많은데, 이들 학생을 위해 맞춤형으로 보충지도를 하고 학습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여기에 초등학교의 특성상 저학년 돌봄교실 외에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방학 동안 돌봄이 필요한 중·고학년 및

외국인 가정의 학생들까지 수용하며 모든 학생을 위한 돌봄교실을 실현하고 있다.

강운정 교사는 “프로그램 사이에 10분의 이동 시간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구성함으로써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으며, 교과보다는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 머무르는 방과 후 시간이 즐거울 수 있도록 고려했다.”라고 말한다.

군 자녀를 위한 특별한 방과 후 프로그램

그 밖에도 자운초는 자운대를 비롯해 한국목공교육협회(목공체험교실), 대전시교육청(창의과학교실), 대전시립미술관(DMA School), 대전교육과학연구원(오조봇교실), 대전문화재단(숨 쉬는 예술)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고교 봉사단과 연계된 '토요 다문화 멘토링'은 서로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가르침의 가치'를 공유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외국 학생들은 형, 누나와의 시간을 무척 즐거워했다고 한다.

대전자운초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대부분 수익자 부담임에도 132%(중복참여)가 참여하고 있으며, 94%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일부 학교에서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방과후학교 업무가 기피 업무로 손꼽히지만, 자운초는 총괄 부장교사 1명, 돌봄교실 업무담당 교사 2명, 방과후실무원 1명, 돌봄전담사 2명, 돌봄교실 자원봉사자 1명 등 7명이 힘을 모아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자운초 방과후학교의 성공은 방과후학교 업무를 고르게 분배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학교시스템에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123 대전자운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태권도부, 한국어교육, 배구동아리 모습





경서중학교 방과후학교
 4 방과 후 버스킹 관람 모습
 5 '로드 스쿨라' 꽃꽂이 체험
 6 경서중학교 신축 교사
 7 학교 상상제작소에서 제작한 트로피



대구 경서중, 교육과정-방과 후 연계 '주인공 프로젝트'

한편, 대구 경서중학교(교장 광상순)는 대도시에 소재한 학교지만, 새로 조성된 아파트와 농업 위주의 자연 부락이 혼합된 곳으로 상대적으로 학교 규모도 작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도 많은 편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의 주도성을 높이고 바른 인성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과후학교가 활발히 운영 중이다.

특히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를 긴밀하게 연계한 '주인공 프로젝트'를 운영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주인공 프로젝트는 학생 주도 활동으로 실천 인성과 미래역량을 기르고 성장을 공유하여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해에는 방과후지원금으로 대구 달성군청에서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실력점프 외에도 20여 가지의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전교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먼저, 경서중은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에 무게를 두고 역량 중심의 수업 활동과 학력 부진 학생을 돕기 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실력점프 국어·수학·과학·영어, 기초튼튼반)과 연계하여 심화학습을 추진하였다. 개방형 강좌를 공모하여 역량 중심의 다채로운 강좌를 개설하고 동아리와 방과후학교를 연계한 창의융합형 프로그램도 다수 운영하였다.

그 대표적인 활동이 '로드 스쿨라'이다. '길 위에서 배우고 성장한다'라는 뜻의 '로드 스쿨라'는 중3 2학기 기말고사를 끝내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 진로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둠을 만들어 꿈 여행 계획을 세우고 직접 실천해 보는 교과-창제 연계 방과 후 교육과정이다. 모둠 구성에서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 지도교사를 초빙하고 꿈 여행을 실천하며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전 과정이 학생 주도로 이뤄진다. 그 결과를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며 높은 평가를 받은 팀에게는 교장 선생님의 특별 사례도 전해졌다.

수업-방과 후 활동-나눔의 선순환

또한, 경서중은 교과통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과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연계한 '마을 영화제'를 3년째 개최하고 있다. 바로 '옥포영화제'이다.

조양희 교사는 "성장기 아이들의 갈등이 주된 소재"라며 "과목별로 아이들과 수업을 통해 갈등과 갈등 해결 방안을 구안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포스터를 만드는 등 다양한 교과통합 수업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한다. 이 활동은 교사 간의 협력이 핵심이지만 이 모든 활동을 이끌어 가는 것은 학생들이다. 작품을 완성한 후에는 마을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다 함께 관람하며 즐기는 축제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밖에도 학생회 주관으로 공동체와 소통,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경서중에는 예(藝)·기(技)·체(體)·지(智)에 걸친 다채로운 강좌를 운영하는데, 이때 익힌 예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내에서 '방과 후 버스킹' 공연을 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나눔으로 보답하고 있다.

경서중은 지난해 신축 교사로 이전하면서 공간의 여유가 많아졌다. 상상제작소는 상상을 현실이 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며,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계단과 계단 아래에는 작은 광장이 있어 점심시간 행복한 음악 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리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조양희 교사는 "첫 방과 후 버스킹을 마치고 행사를 준비한 학생회 아이들의 '성공한 것 같다. 분위기 대박'이라며 기쁨에 들뜬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다."라며 "이후, 지역사회 봉사로도 이어져 나눔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학교의 저력은 곧 교육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믿는 경서중의 선생님들은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를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갖추고 있다. 방과후학교도 모든 선생님이 머리를 맞대고 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교육과정과 연계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②

이성남 김천 울곡중학교 교사 학교 체육교육에 새바람을 몰고 오다

체육수업은 무엇보다 재미있어야 한다고 믿는 김천 울곡중학교 이성남 체육 교사. 경북도교육청의 '수업전문가'인 수업선도교사로 활동하는가 하면 투투볼과 파워킥볼 등 뉴스포츠 종목을 개발, 학교 체육수업 현장에 도입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1

1 2 3 2명의 타자, 2명의 주자, 2명의 포수가 경기를 이끌어 가는 뉴스포츠 '투투볼'을 만든 이성남 교사는 학교 체육교육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2



3

2015년 국내 체육계에서는 새로운 스포츠 종목의 깜짝 등장 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야구와 유사하지만 2명의 타자, 2명의 주자, 2명의 포수가 경기를 이끌어가는 종목. '투투볼'이다. 야구의 배트 대신 줄로 연결된 줄배트를 사용하여 공을 치고, 진루하게 되는 새로운 스포츠다. 2명씩 조를 이뤄야 하므로 학생들로서는 협동과 배려가 특히 요구되는 종목이다. 5년 전, 이 뉴스포츠 종목 개발에 참여했던 공동창안자 중 한 사람이 바로 김천 울곡중학교 이성남 체육 교사다. 그는 이 새로운 스포츠를 자유학기제 체육활동 프로그램으로 활용, 학생들의 흥미를 배가시키는 수업을 구현해 왔다. 이 교사가 직접 개발한 뉴스포츠는 투투볼 외에도 바운스파이크볼(기존의 배구와 접목), 파워킥볼(발야구와 접목) 등 5종목. 그동안 이 교사는 이 뉴스포츠를 널리 보급하고 학교현장에 적용하면서 체육수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왔다. 또 다문화 국제교류사업에도 참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 현지 학생들에게도 이들 뉴스포츠 종목을 전파해 왔다. 이러한 공로로 2017년에는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부문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까지 안았다.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재미난 체육수업'

“초등학교 시절 저는 주산도 곧잘 하고, 수학경시대회에

도 자주 나가곤 했었어요. 수학교사를 꿈꾸는 학생이었죠.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제가 방향을 많이 했는데, 그때 누구보다 저를 잘 이끌어주셨던 학생부장 선생님이 바로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그 이후부터는 '나도 학생들에게 체육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야지' 그렇게 저도 체육 교사를 꿈꾸게 됐죠.”

2002년 교직 첫 부임과 함께 이 교사가 개별적으로 심혈을 기울였던 첫 프로젝트는 줄넘기 연수였다. 연수가 끝나자마자 강사추천을 받으면서 그 역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줄넘기 강사가 됐다. 이를 계기로 경상북도교육연수원과 인연을 맺으면서 그는 '교사 맞춤형 정보화 활용 컴퓨터 연수' 강사까지 연이어 맡아 진행하게 됐다.

“미국의 교육학자 앤디 하그리브스(Andy Hargreaves) 교수는 현장의 교사들에게 '자신이 배우지 않았던 방식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설파해 왔지요. 그의 주장대로, 저 또한 지난 18년여 동안 과거에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또 운영하려고 늘 노력해 왔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체육수업에서 이 교사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건 '재미난 수업'이다. 실제로 이 교사는 2002년부터 '재미난 체육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카페를 운영

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수업 후에도 그 내용은 물론 자신의 신체 움직임 등에 대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영상들이 올려져 있다. 이곳에는 또 체육송, UCC 제작, 영어체육 등 이 교사가 이제까지 운영해 온 체육수업의 다양한 방식들이 소개되고 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미난 체육교사’ 채널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수업방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해오고 있다.

“제가 초임 시절부터 관심을 가졌던 줄넘기와 영상편집, 그리고 영어는 저의 체육수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죠. 저로서는 체육수업을 하나의 수업이 아닌, 마치 예술 공연처럼 감동이 있는 수업으로 운영해 보고 싶다는 꿈을 늘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 꿈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 뉴스포츠(발명)반 수업을 운영하면서 구현될 수 있었다. 당시 뉴스포츠반을 운영하기 위해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은 물론 새로운 형태의 교수법도 필요했다. 이 수업의 3년차, 이 교사는 이 수업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뉴스포츠를 직접 고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 수업의 형태로 재설계했다.

‘고아권익연대’ 남부지역 대표로도 활동

지난 설 명절 기간, 이 교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가족과 함께 김천지역에 있는 한 보육원엘 다녀왔다. 그곳은 이 교사가 다섯 살 때부터 21년간 살았던 ‘집이자 그의 뿌리’ 같은 곳. 이 교사는 지난해부터 전국 보육원의 보호 아동과 보호 종료 청소년들을 돕는 ‘고아권익연대’(이하 고연) 공동대표이자 남부지역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매년 2,500여 명의 보호 종료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보육원에서 퇴소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은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본 경험이 없는 터라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에요. 어릴 때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한 자아는 결국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보육원 퇴소자들에게 재정적 지원만큼이나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육원을 퇴소하면서 정부로부터 소정의 자립정착금이 제공되긴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의지할 대상을 잃고 마는, 사회로부터 두 번째 버림을 받게 되는 형국이 연출되곤 한 다면서 이 교사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하기도 했다. 어렸을 적, 등교할 때 “학교에 잘 다녀와!”라고 아침 인사를 건네주던 보육원 ‘엄마’의 따뜻한 한마디가 오늘의 그를 있게 했다고 굳게 믿는 이 교사. 따라서 그 역시 마음 붙일 데 없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선배로서, 또 형으로서 나침반 같은 롤 모델이 되어주자는 생각을 늘 품고 있기도 하단다.

‘고연’은 앞으로 이들 보육원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프로그램은 물론 아동복지 관련법 개정 및 요보호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 제시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교사는 또 “고연이 요보호 아동 및 퇴소자들의 가족이 되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복지 소외 없는 학교를 꿈꿉니다”

“저는 사회복지, 특히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로 크게 보면 교육 속에 보육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고요. 학교에서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교육을 통해 누구든지 꿈을 꾸고 올바른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기회도 부여받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직접 겪었던 아픔들이 있기에 이 교사는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된 교육이 아닌,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데 앞장설 것이



5

4 겨울방학에도 진행되는 방과 후 '농구수업'은 재밌는 체육수업으로 인기가 높은 강좌다.
5 보육원 퇴소 청소년을 지원하는 이 교사

라는 포부도 함께 들려줬다. 더 멀리 내다보며 그리고 있다는 이 교사의 꿈은 교육행정가. 고아 출신 교육행정가로서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경험해보고 싶단다.

“제가 보육원에서 겪어야 했던 소외를, 그 문제점들을 좀 더 개선하는 데 제 남은 교직의 역량과 시간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또 지역사회에서는 학교 교육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울곡중 본관 2층에 있는 강당. 겨울방학 기간임에도 이 교사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농구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울곡중 농구팀은 지난 5년간 경북스포츠클럽대회에 김천 대표로 참가해 왔다고. 평소 학생들에게 체육이 얼마만큼 재미있는 과목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늘 수업을 설계해 왔다는 이 교사. 취재 당일, 학생들과 함께하는 재미난 농구수업 속에서 활짝 웃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

재미난 체육수업 온라인 카페 cafe.daum.net/jaeminanpc
재미난 체육교사 www.youtube.com/channel/UCpcXT8SrJQxw0Hjgi0HyYA



4

경북사대부중 최선경 교사의 '난민 프로젝트'

난민에 대한 공감을 통한 인식 변화, 그리고 세상과 연결 짓기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교장 이동길)의 최선경(영어) 교사는 지난해 '난민'을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다. 영어과 목표와 성취기준에 부합하면서 학생들의 실제 삶과 연관되는 프로젝트 주제를 늘 고민해왔다는 최 교사는 '난민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소수자의 입장을 공감하고 실생활에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길 바랐다. 학생들이 현실 속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실천하도록 하는 체인지 메이커 교육을 통해 교실 속 학습 혁신을 전파하고 있는 최 교사의 프로젝트 수업 과정을 살펴보자. <편집자 주>

'난민 프로젝트'는 난민 문제를 알리고 수익금을 유엔난민기구에 기부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프로젝트였다. 앞으로의 사회는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으로서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난민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고 실천해 보자는 의도도 있었지만, 꼭 난민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의 입장을 공감하고 배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더 컸다. 학교 교실 안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주고 공감해야 할 대상들이 많다.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할 세대이니 이런 경험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거라 믿는다.

수업은 가장 먼저 'On the Move Activity'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난민의 상황을 체험해보게 했다. 'On the Move Activity'란 어린이, 청소년들이 안전을 찾아 떠나는 난민 가족의 여정을 따라가 볼 수 있게 구성된 활동이다. 6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하고, 각 단계에서 해결해야 하는 미션을 제시한다. 이를테면 여행에

필요한 물건 6가지만 고르기, 인원이 제한된 배에 누가 먼저 탑승할 것인지 정하기 등이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난민의 상황을 체험해보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었다. 활동을 마친 학생들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슬펐을지 마음이 아프다." "난민들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해있고, 이번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감정을 느껴볼 수 있었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수업 설계 시 중점 사항 및 운영 팁

프로젝트 진행 팁 중의 하나가 도입 활동을 유의미하게 하는 것인데,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용기를 내어 유엔난민기구에 도움을 요청했다. 미리 이메일을 보내 학생들과 난민 프로젝트를 할 것이란 걸 알리니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책자와 리워드 상품 등의 예시를 보내주었다. 프로젝트 종료 시기에는 유엔난민기구에서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미리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런 요소가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더욱 몰입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영어 사용 면에서는 앞으로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은 글쓰기, 유엔난민기구에 이메일 쓰는 법, 난민 관련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도록 했다. 교육용 영상 채널인 테드에듀(TED-Ed)의 'What does it mean to be a refugee?(난민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라는 영상을 통해 난민 관련 영어표현에 익숙해지도록 했고 유튜브 채널, 구글 검색, 유엔난민기구 사이트 등을 통해 난민 관련 자료를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게 했다.

- 1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꾸민 난민 돕기 캐치프레이즈
- 2 교내 축제에서 진행한 아나바다 장터. 부스 수익금은 유엔난민기구에 기부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내용이 실제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교실 안에서만 공유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각자 유엔난민기구 본부에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고, 영어로 캐치프레이즈를 작성해 만든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유엔난민기구에서 학생들의 메일이 폭주해 불평이라도 하면 어쩌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모든 학생들이 유엔난민기구로부터 감사하다는 답장을 받을 수 있었다. 나중에 유엔난민기구 한국 담당자에게 전해 듣기로 본부에서 한국 학생들의 많은 격려 이메일을 받고 기뻐했다고 한다.

또, 난민 돕기 크라우드 펀딩 개설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한 후 실제로 네이버 해피빈 사이트에 펀딩 개설을 신청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실제로 난민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할 요소가 충분했다고 본다. 비록 실제로 펀딩 개설이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교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학기 말 열린 교내 축제에서는 아나바다 장터 부스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유엔난민기구에 전달하는 활동을 구상했다. 책, 문구류, 구두, 가방, 의류, 생활용품 등 각반 학생들과 교사들로부터 물품을 받고, 학생들이 직접 가격을 책정해 판매에 나섰다. 난민 관련 영어 표현을 퀴즈로 내고, 맞추는 학생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이 부스 운영 활동에도 연계되도록 나름 고심한 결과였다.

평소 프로젝트 수업을 디자인할 때 공개할 결과물, 실제성의 요소에 중점을 두고 구상하는 편인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학생들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하고 성찰의 기회를 각 단계마다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무엇보다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난민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학생의 변화

각 단계별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학생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예로, 학생들이 처음에는 아나바다 장터 부스 운영을 꼭 해야 하나며 부정적인 반응이었지만, 부스를 준비하고



4 'On the Move Activity' 모둠 활동

운영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보고 교사가 어떤 경험과 환경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난민 프로젝트와 난민 돕기 아나바다 장터는 연례행사로 진행해볼 예정이다. 유엔난민기구와도 계속 연락하면서 교실 수업에서 난민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프로젝트 종료 후 작성한 학생들의 성찰일지를 통해 공개할 결과물이 몰입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활동을 마친 학생들의 소감은 다음과 같았다.

“평소에 난민이라고 하면 그냥 지나치고 말았는데 학교에서 난민 프로젝트를 하니 난민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게 됐고, 크라우드 펀딩을 한 경험이 도움이 되어서 좋았다. 난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랐는데, 조금이라도 난민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첫 시간에 내가 직접 난민이 되어보는 활동이 가장 재미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난민이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 누구나 언제든 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난민 문제를 알리고 난민 돕기 활동에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캐치프레이즈 만들기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다. 난민들에 대해서 잘 알릴 수 있는 한 문장을 꾸미는 거여서 기억에 남았다. 그리고 홍보용으로 쓸 영상을 직접 촬영하니 더 열심히 하게 됐다.”

[표] 난민 프로젝트 수업 흐름

차시	소주제	주요 학습 내용
1	On the Move Activity	- 난민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는 역할극 체험
2	프로젝트 안내 및 자료조사	- 모둠구성 및 팀빌딩 활동 - 난민 관련 용어 정리 및 자료 수집 안내
3	관련 자료 정리	- 난민 관련 용어 정리 - 홍보자료에 들어갈 표현들 정리
4-5	이메일 보내기	- 조사한 자료 발표 - 외국 난민 친선대사나 유엔난민기구 담당자 또는 난민 당사자에게 이메일 쓰기
6-7	홍보자료 만들기 / 리워드 상품 구상하기	- 난민 문제를 알리는 캐치프레이즈 만들기 - 크라우드 펀딩에 사용할 리워드 상품 구상하기
8-9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하기	-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하기(국문/영문)
10	성찰하기	- 크라우드 펀딩 진행 상황 공유하기 - 프로젝트 과정 성찰하기

친환경 에너지 창작소 '에코 롱롱 큐브' 내 손으로 만드는 미래 에너지 도시



12 태양광 발전을 체험해보는 학생들

설 연휴 전날인 지난 1월 23일,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에 위치한 '에코 롱롱 큐브'를 찾은 열혈 학생들은 단체가 아닌 개별 신청자들이었다. 인근 탑산초등학교에서 혼자 온 이가연 학생(6학년)은 벌써 세 번째 체험이다. "이번엔 벽이 하나 생겼네요. 올 때마다 재밌어요."라며 오리엔테이션 전부터 체험관을 누비고 다닌다. 서울 신용산초등학교 광도현(6학년) 학생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도현 학생은 "저기 벽화에 제 그림도 있어요. 지난번 캠프 때 그리고 갔죠. 아직 붙어 있을 줄 몰랐어요."라며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인다. 저만치 떨어져 앉은 아이들을 친근한 목소리로 한자리에 모으는 최수원 교사는 이곳에서 에코 선생님이로 통한다. 시원한 웃음으로 아이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김윤원 수석은 이곳 터줏대감 롱롱 선생님이다.

전시체험관은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수송에너지 등 세 개의 에너지 존과 미래 에너지 도시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존에서는 바코드를 찍어야 친환경 에너지 만들기 체험이 가능하다. 이때 아이들이 만든 친환경 에너지로 천장에 설치된 에너지 큐브의 불을 밝힐 수 있다. 열심히 참여할수록 천장의 파란 불빛이 더 늘어나는 셈.

밝은 만큼 전기가 만들어져서 불을 밝히게 되는 압전 에너지체험, 에너지 불을 넣으면 불이 지나가는 길에 따라 태양열의 다양한 활용을 알 수 있는 열에너지 체험, 페달을 밟으면서 톱니바퀴를 돌리면서 알아보는 바이오 연료 등 놀이처럼 체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실내광에서도 작동하는 태양광 패널, 물을 전기분해하면서 만들어지는 수소에너지 등을 탐색하다 보면 어느새 미래 에너지 도시 만들기에 다다른다. 이 코너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미래 에너지 도시의 도로와 발전소, 주거 형태 등을 직접 디자인해 보도록 했다.

스스로 탐색하며 문제해결

아이들이 전시체험관을 모두 마무리하면 에코, 롱롱 선생님과 한자리에 모여 워크시트를 정리하며 퀴즈 시간을 가진다. 이 시간을 통해 미래사회에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당하는 '소비에너지=생산에너지'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에너지 뉴스룸에서 보았던 글로벌 이슈들을 짚어 보면서 세계 각국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해 한발 다가서게 된다.

34 광합성에 효과적인 빛을 알아보는 에너지 가든 만들기 체험



밝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이끄는 선생님들 덕분에 주눅이었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변했다. 첫 만남의 어색함은 오간 데 없이 퀴즈 시간은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되었다.

이날의 선택 프로그램은 '내가 만드는 에너지 가든'이었다. 체험 전 활동으로 교과과정과 연계해 식물의 광합성 작용과 이에 가장 효과적인 빛을 알아본다. 이후 코딩 프로그램으로 LED 전구 빛의 종류와 밝기, 시간 등을 직접 조절해 스마트 가든에 불을 밝혀 본다. 아이들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한 빛으로 채워지는 에너지 가든 앞에서 아이들의 탄성이 터져 나온다.

가장 화려한 불빛을 선보인 팀은 경기도 파주 한빛중학교 윤아림(1학년) 학생과 서울 세화여자중학교 김희송(2학년) 학생. 아림 학생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대로 불빛이 신나게 반짝이는 게 기분이 좋다."라며 환하게 웃었다. 인천 원당중학교 신승운(1학년) 학생은 "과전류 문제로 가든에 빛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재밌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베이스캠프

에코 롱롱 큐브는 '찾아가는 에너지 학교 에코 롱롱'의 베이스캠프다. 에코 롱롱은 2009년 환경교육에 역점을 두고 5톤 트럭을 개조해 만든 콘셉트카다. 차체 내에서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등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햇빛으로 조명을 밝힌다. 이 변신 과정을 아이들이 볼 수 있고, 다양한 키트를 체험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9만 4천여 명 이상의 학생들을 만났다. 에코 롱롱 버스

와 함께 전국을 누빈 김윤원 수석연구원은 "환경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과정 개발과 콘셉트카 고민에만 1년 넘게 걸렸다."라며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은 섬이건 시골이건 가리지 않고 출동한다."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에코 롱롱 큐브가 서울 강서구 마곡 연구단지에 자리를 잡은 것은 2018년 5월. 에코 롱롱 프로그램으로 쌓은 노하우를 '큐브'에서 마음껏 펼치게 되었다. 또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교육의 범위를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넓히고 자유학년제 연계 및 진로체험교육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최수원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에 보람을 느낀다."라며 "개별 신청을 하는 친구들은 관심도가 높아 함께 수업하는 시간이 더욱 즐겁다."라는 감회를 밝혔다.

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에코, 롱롱 선생님이 이곳 큐브의 에너지가 아닐까 한다. 에코 롱롱 큐브에서는 오전·오후, 요일마다 선택체험과정이 다르기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2

에코 롱롱 큐브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 코오롱 One&Only타워
- 교육일 : 월~금요일(공휴일, 주말 휴관)
오전 10:00~12:00 (120분/1회)
오후 13:30~15:30 (120분/1회)
방과후 16:00~18:00
(방과후는 전시체험만 가능, 17:00까지 입장)
- ※ 학급 단체의 경우, 교육시간 협의 가능(유선 문의)
- 문의 : 02)2199-1998
- 홈페이지 : www.ecolonglong.or.kr



문찬영 95도씨 대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신발 만들어드려요”**

‘커스텀(Kustom)’이란 기성복을 디자이너가 독창적으로 재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고 싶거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패션 아이템을 갖고 싶은 이들이 찾는 것이 바로 커스텀 제품이다. 95도씨(대표 문찬영)는 신발 커스텀 전문 업체로 나이키, 컨버스 등 기존 신발에 새로운 디자인을 더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나만의 신발’을 만든다.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문찬영 대표는 지난 2018년 95도씨를 창업했다. 취미로 신발에 그림을 그려오다 개인 SNS에 올린 것이 반응이 좋아, 뜻이 맞는 같은 과 동기들과 본격적으로 사업화하게 됐다. 업체명 ‘95도씨’는 문 대표를 포함해 창업 당시 팀원들이 전부 1995년생 동갑내기라는 단순한 이유로 짓게 됐다. 현재 회사에 95년생은 문 대표 한 명으로, 이제는 5명의 과 후배들과 함께 일을 꾸려나가고 있다.

“창업하고 싶어 하는 후배들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95도씨에서 경험을 쌓고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죠. 앞으로 직원도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늘릴 계획이에요.”

과 동기들과 시작한 창업, 이제 후배 양성 기업으로

흰색 운동화를 캔버스 삼아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니 하나의 작품이 되고, 밋밋한 검은색 운동화는 빨간 자수 꽃을 더해 포인트 아이템으로 대변신한다. 페인팅, 자수, 가죽 제봉, 수전사 등 디자인 방식에 한계도 없다. 수전사는 물을 이용해 신발에 전사하는 방식으로 주로 자동차 도색 시 사용되는 기법이다. 문 대표는 “원래 독학으로 커스텀을 해오다가 더 새롭고 다양한 디자인을 해보고 싶어서 전국의 장인들을 무작정 찾아다니고, 그분들의 어깨너머로 기법을 배우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커스텀 디자인을 더하면 본래 신발 가격보다 많게는 세 배가량 값이 올라가지만, 밤낮없이 작업에 몰두할 정도로 주문량이 많다고. 문 대표는 “한 달에 100컬레 정도

- 1 물감을 이용해 신발에 페인팅 작업을 하는 문찬영 95도씨 대표
- 2 95도씨는 학교 창업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창업경진대회와 박람회 등 외부활동에 참여했다.
- 3 검정색 운동화에 빨간 꽃 자수를 커스텀한 제품



주문이 들어오고, 매출로 따지면 연간 1억 원이 넘는다.”라며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맞춤 제작하고 배송되기까지 3일 이내로 가능한데, 밀려오는 주문량 때문에 현재는 약 일주일의 소요된다.”라고 전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청년 창업가가 되기까지

어렸을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는 문 대표는 어려웠던 가정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오로지 독학으로 디자인을 공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어렸을 때부터 실질적으로 가장 역할을 했어요. 19살 때부터 PC방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다행히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지만, 24살이라는 나이에 창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금전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가 평소 좌우명으로 삼는 말은 ‘R=VD(Realization= Vivid Dream)’이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고등학교 시절 이지성 작가의 저서 <꿈꾸는 다락방>을 감명 깊게 읽고 알게 된 개념이다.

“중학교 때 막연하게 패션에 관심이 많았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이 길을 진로로 선택해도 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읽은 책에서 접한 말인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후회 없이 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살아 가다 보면 성공은 반드시 뒤따라올 것이라고 믿게 되었죠.”

처음에는 창업을 반대하던 부모님도 이제는 문 대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그는 “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휴학하고 창업을 한다고 하니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복학하지 말고 일에 매진하라고 하신다(웃음).”라며 폭로(?)하기도 했다.



‘R=VD’ 다음 목표는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

학교 창업지원단에서도 95도씨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현재 95도씨는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에 입주해있다. 창업공간 제공과 함께 시제품 개발 비용, 외부 활동 지원금을 받았고, 창업대회 준비 멘토링도 진행됐다. 덕분에 지난해 ‘도전! K-스타트업 2019’ 창업경진대회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고,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등 다양한 박람회에도 참여했다.

문 대표는 올해 대외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향후에는 오프라인 매장도 오픈할 계획을 내비쳤다. “95도씨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시장에서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는 지금도 ‘R=VD’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 ㉠

겨울·봄방학 맞이한 선생님 “지금은 연수 중”

글_ 강병희 명예기자

법이 궁금한 선생님들 ‘모두 모여라!’



1월 6일~10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는 교사들을 위한 ‘사법 교육 직무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연수는 지식재산권 법, 근로관계법, 소년보호재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소송 사례, 개정 학교폭력법 등 실제 학교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법 관련 지식과 사례를 해당 사건을 다루는 판사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 설명하는 알찬 연수로 중등학교에서 인기 있는 연수 중 하나이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연수에 참여한 선생님들은 다양한 교과 전문성 외에도 법에 대한 지식이 학교 현장 및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연수 중간중간에도 다양한 궁금증을 현직 판사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연수의 피날레는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재판이었다. 뇌물죄 사건을 다루는 모의재판은 정의 실현과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무죄 추정 원칙 사이의 딜레마를 경험할 수 있었다. 선생님들의 연기 실력 또한 빛났다. 특히 법원에서 개발한 국민양형체험 프로그램 또한 체험할 수 있었는데 이는 국민참여재판과 더불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글_ 광민호 명예기자

미래를 열어갈 인공지능교육 교사연수



인천시교육청(창의인재교육과)은 경인교대 인공 지능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1월 4~5일 양일간 경인교대(인천캠퍼스)에서 ‘2020 인공지능교육 교사연수’ 1기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전략과 교육부의 기본계획에 발맞춰 교사의 역량 신장을 위해 진행되었다. 인공지능 개요 강의를 시작으로 학습하는 AI, 추천시스템, 유전알고리즘, 인공지능의 이미지 인식 기술 CNN, Machine Learning for Kids, Mblock 5의 활용을 다루며 인공지능교육 프레임워크 강의로서 마무리하였다. 본 연수는 초등 교사 20명, 중등 교사 20명이 참여하였으며 2기 연수는 1월 11~12일, 3기 연수는 1월 20~21일 진행됐다. 향후 인천석정초등학교 및 광성중학교에서도 인공지능 분야 교사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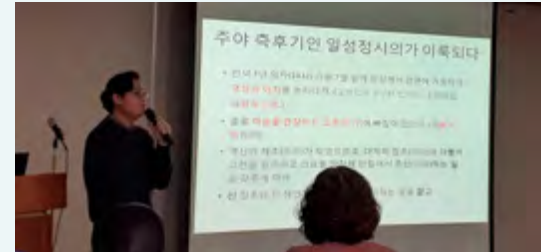
글_ 유연상 명예기자

선생님이 만들어가는 민주시민교육

지난 1월 13~15일 2박 3일간 펼쳐지는 7기 민주시민교육 역량 연수에 참석하였다. 이번 연수는 교육부, 전국의 시·도교육청, 청주교육대가 함께 주관하는 연수로 2019 여름방학에 1~4기, 이번 겨울방학에 5~8기까지 전국의 초·중·고교 중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팀빌딩, 학교민주주의, 소셜 네트워크 게임, 정책마켓, 선택강의, 선택 워크숍,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초 지식과 배경, 내용을 함양하고 교원들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글_ 김민중 명예기자

천문, 하늘에 묻다



대전에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은 해마다 여름과 겨울방학에 전국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원 천문연수를 개최한다. 연수는 초·중·고로 나뉘어 각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연수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천체 현상 중의 하나인 일식이었다. 옛날 사람들에게 일식은 세상의 멸망이며 별별 떨 만큼 신비로운 현상이었으며 우주가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일식이 일어나면 천문학자들은 가장 잘 보이는 곳을 찾아가 며칠 밤을 새며 관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나도 천문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에게 천문학 배우면 놀러 많이 가서 좋다는 이야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연수를 통해 천문학의 위대함과 고마움을 한 번 더 느꼈고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글_ 이대송 명예기자

특수교사, 교육연극을 만나다



세움특강이 열렸다. 이번 세움특강에는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연극의 이해와 실습으로

지난 1월 18일 서울 이룸센터에서는 ‘특수교사, 교육연극을 만나다’ 주제로 셋업 특수교육연구회 주관의 2020년 첫 번째

글_ 김미경 명예기자

학교급식전담원 급식 준비 더 안전하게~



광주시교육청이 ‘2020년도 학교급식전담직원 안전·보건교육’을 지난 1월 13~14일과 1월 15~16일 2회에 걸쳐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에 공·사립 학교급식전담직원 1,700여 명이 참여하였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급식전담직원은 매 분기 6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부분 사고는 열악한 환경과 잘못된 습관 등에서 발생하는데, 위험을 위험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매일 ‘작업 전 10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법적 의무사항은 충족하고 있다. 이론 및 실습 등 체험 중심으로 편성된 이번 연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해, 근골격계질환 예방, 현장 중심의 위험성 평가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소화기 소화전 사용 요령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루어졌으며 전국 31명의 특수교사들이 참석하여 배움과 나눔이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움특강에 참석한 안성 비룡초 주소영 선생님은 “이번 특강을 통해 교육연극과 특수교육의 연결 고리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나의 갈증을 해소시켜 준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2020년에도 세움특강은 전국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문해력’, ‘미래교육’, ‘놀이교육’ 등 배움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매월 1회 실시할 예정이다.

글_ 박성호 명예기자

대구 죽전중 마지막 졸업식,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죽전중학교(교장 김영미)는 1월 8일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교육청 관계자·졸업생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강당에서 마지막 졸업식을 열었다.

죽전중은 1983년에 개교해 37년간 약 12,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교사들의 열의와 학생들의 노력으로 많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며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였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마지막 35회 졸업생 69명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졸업식은 재학생들의 댄스 공연과 제13회 졸업생들로 구성된

사물놀이 공연단들의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과 더불어 3학년들이 한 달간 공들여 만든 졸업 UCC 영상 상영 및 졸업생 각각의 장점과 특징이 잘 드러나는 1인 1상 수여식을 통해 죽전중의 마지막 졸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시간이 되었다. 김영미 교장은 “모든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고자 애썼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Happy Day’를 외치며 등굣길을 맞이하였고, 학생 모두가 사랑받는 귀한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두에게 편지를 써주는 등 학교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이 새로운 길을 나서는 학생들에게 작은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소감을 말한다.

졸업식에 참석한 강은희 교육감은 “사랑하는 죽전 졸업생 여러분, 비록 오늘 졸업식을 끝으로 학교는 문을 닫지만, 죽전중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모교로 기억되고 추억될 것이다. 어느 곳에서나 죽전중에서 받은 사랑과 실력을 크게 펼치는 멋진 청소년이 되길 빌며 언제나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글_ 백희 명예기자

창의융합형 인재 키우는 강남아울학교



메이커스페이스 '강남아울학교'는 강남구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함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하는 교육협력사업이다. 강남아울학교는 상상하고 만들고 협력하며 공유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출하는 개방형 제1호 강남구 메이커교육모델학교이다. '아울'은 여럿을 모아 한 '덩어리나 한판이 되게 한다'는 뜻의 '아

우르다의 옛말 '아울다'에서 온 것이다. 강남아울학교는 정보컴퓨터실, 미술실 등을 잇는 'Smart-Zone'을 설치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 연계를 통해 트레고 EV3로 만나는 로봇 세상 △항공과학으로 만나는 메이커 세계 △앱&벤처로 나만의 앱 만들기과 인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항공과학으로 만나는 메이커 세계 △로봇프로그래밍을 통한 컴퓨터사고력 교육을 진행한다. 제2 강남아울학교는 청담중학교로 이어지며 점차 로봇고, 단대 소프트웨어고, 메이커교육거점센터(발명교실) 등으로 확대한다. 이들 학교는 특별실에 메이커교육 기자재를 갖추고 오는 3월부터 교과연계 메이커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글_ 엄장수 명예기자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은 입주민 건강을 위해 헬스장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도서관으로 이용하기도 하며 작은 카페처럼 운영되기도 한다. 몇 해 전, 뉴스에서는 어느 아파트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운영 방향을 달리했다.

지난 12월 시흥 은계지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문화강좌를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개설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입주자 대표회'는 여러 경로를 통해 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의를 벤치마킹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12개 과목이 선정되었다. 이 중 정원 대비 60% 이상이 수강 신청을 한 6개 과목의 강의를 개설되었다. 주로 인근의 은계초 학교 보수 관계로 인해 일찍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한 방학특강이 이루어졌다. 강의를 진행한 커뮤니티 센터 내의 작은 도

최근 신설되는 아파트의 경우, 커뮤니티 센터를 활성화하여 입주민들의 편의생활을 돕고 있다. 보통 서관은 입주민들의 관심과 반응이 뜨거운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처음 커뮤니티 센터 내 문화강좌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입주자 대표였다. 김정진 입주자 대표는 처음 문화강좌 개설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파트 입주민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고 전했다.

“처음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 간의 벽을 낮추고 타 초등학교에 비해 빨리 시작한 방학으로 인한 시간의 활용, 그리고 아파트 친구들 간의 만남의 장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아 빠이고 싶었습니다. 결론론적이지만, 진행한 수업의 만족도가 높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1월 말까지 진행된 강의의 만족도가 상당히 추가 강의 개설 여부나 향후 강의 계획을 묻는 입주민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 정기적인 강의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시도가 입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밝은 사회를 이끄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그의 미소가 믿음직스럽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글_ 김민중 명예기자

성명여중, '제3회 나감독 너배우 영화제'



학생들이 모둠별 책읽기를 통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배우로 1인 1역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영상 제작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3주 정도 진행된 주제중심 수업을 통해 반별 우수작을 선정하였으며, 예선을 통과한 반별 대표작들이 '나감독 너배우 영화제'에 올라 친구들과 함께 영상물을 공유하였다. 서재기 교장은 “학생들이 영화제를 통해 단순한 미디어 시청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제작하는 경험을 얻었고, 배우 또는 영상 제작자로서 재능과 가능성을 엿보는 진로 교육으로서도 매우 좋은 시간이 되었다.”라며 다양한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미래사회 인재양성의 핵심으로 도약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태동

2018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공개되어 유아교육계에 일대 파란이 일어났다. 당시, 국회·언론 및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및 비리가 만연해지는 등 심각한 상황을 교육부가 인지했는지, 인지하고도 지도 감독 등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주었다. 이는 2013년부터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지원하고, 그 지원액이 유치원만 연간 약 2조 원가량이 되는 데 비해, 공개된 일부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 등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고스란히 묻어난 결과였을 것이다.

교육부는 ‘유치원도 학교’임을 공고히 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 및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18년 10월 25일 당정 협의를 거쳐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각종 공공성 강화정책을 펼쳐 왔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주요 추진과제인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2019년 3월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67개원과 도입을 희망하는 753개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국공립유치원 사용 에듀파인을 기본으로 하되, 사립유치원 회계의 운영규정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최적화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원아 200명 이상 567개원 모두가 도입하여 투명한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부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

립학교법, 학교급식법) 통과와 에듀파인 도입 및 시행을 반대한 대규모 집회, 불법 휴·폐원 예고 및 허위·조작 가짜 뉴스 유포 등에 대해서 정부의 엄정한 대응 방침에 따른 흔들림 없는 대응으로 대국민 공감대 확대 및 지지로 이어졌다. 당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유치원 3법 통과와 에듀파인 도입에 83.1%의 국민이 찬성하였으며, 언론·방송의 기사와 댓글에서 정부 정책 방향 및 대응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확인하였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사용자의 에듀파인 도입 및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 연수, 전문상담 및 지원(컨설팅), 0079 전화상담센터 등 상시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일반회계 및 에듀파인 활용 사용자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자주 묻는 질문(FAQ)과 통합매뉴얼을 제작·배포('19.2.)하였다. 이후 16개 시·도교육청으로 「찾아가는 간담회」('19.5.~'19.11.)를 실시하여 사립유치원 원장·감, 교·직원 등 147명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하면서 체감한 장단점, 불편한 점과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과 연계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였다.

오는 2020년 3월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지원)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①사립유치원 맞춤형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개발 적용 ②유치원 회계 시기를 고려하여 단계적 개통 ③시·도교육청 대표 강사와 컨설팅단을 통한 사용자 상시지원체계 강화(대표 강사 337명, 컨설팅단 1,302명 / '19.11.30.기준) ④시·도교육청별 전담조직 구성·운영(72명, TF 포함)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또한, 2학년 이하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 추진을 통해 원장 1인 결재가 가능하고 지출단계를 축소(원인 행위 영역의 ‘품의’ 생략)하는 등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한 밀착지원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K-에듀파인을 통해 투명하게 회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개통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도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목적 외로 사용된 지원금에 대해 반환 명령이 도입되고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유아교육법상 처분을 받은 유치원의 정보를 공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무엇보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교비 회계의 목적 외 부정 사용 금지가 명문화되어, 유치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 1월 29일 공포되어, 올해 7월 30일(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내년 1월 30일(학교급식법) 시행될 예정이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의 현장 정착

유아를 둔 부모들의 편의를 위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가 2020년에는 모든 국공립유치원(4,892개원)과 사립유치원(3,684개원)이 100% 참여하여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아들이 다니는 생애 첫 학교로써 공교육으로 진입하는 통로라는 의미를 담은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완료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국회 통과
시·도교육청별 특수성 고려한 국공립유치원 개원 준비
만3~5세, 누리 교육과정 오는 3월부터 전면 적용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접수, 추첨, 등록을 위해 학부모가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절차가 개선되었다.

‘처음학교로’는 201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 도입됐지만, 시스템 도입 및 활용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사립유치원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7년에는 2.8%, 2018년에는 59.4%에 그쳤다. 다행히, 작년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례 제정으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사립유치원도 100%(3,684개원) 참여하였다.

시스템 기능 면에서는 서버를 증설하여 접속자 폭주로 인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였고, 자동문자완성 기능을 구현하여 유치원명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육동영상을 제작하여 ‘처음학교로’를 처음 사용하는 학부모와 유치원에서 시스템 이용의 절차를 익히기 쉽도록 개선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유치원 간 모집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모집요강’을 마련하여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였고, 유치원별 모집인원을 시스템에 공개하였다. 세종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접수기간 동안 모집인원 대비 접수 인원을 실시간 제공하는 등 보다 투명한 ‘처음학교로’로 국민에게 다가갔다. 이에 더해 현장의 불합리한 모집 기준을 발굴하고 시·도별 불공정 모집 실태에 대한 지도·관리 기준을 마련토록 하여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첫 학교로의 진입이 공정할 수 있도록 유치원 입학 전 과정에서 제도를 강화하였다.

지난해에는 ‘처음학교로’를 직접 사용했던 2천여 명의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스템 및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 및 제도 개선’을 하였으며, 올해 1월에도 권역별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초등학교로’에 대한 학부모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직접 소통하면서 현장으로부터의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새해에도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 입학이 더욱 공정하고 편리해지는 ‘초등학교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아이들의 첫 번째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교육부는 1,000학급 규모의 국공립유치원을 신속하게 확충하였다. 특히 2019년 1월에는 국토교통부와 의 업무협약을 통해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는 100%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KB금융그룹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50억 원의 지원금을 병설유치원 확충에 지원하였다.

또한, 매입형, 공영형,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 등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유치원 설립 모델을 개발하여 2019년에는 5개의 매입형유치원과 2개의 공영형유치원, 1개의 부모협동형유치원이 개원하여 운영 중이고, 2020년에도 시·도교육청별 특수성과 여건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유치원이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지형 변화와 유치원 환경 변화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폐원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공립유치원 신증설이 꼭 필요한 곳, 신도시·대규모 신규택지 등 유치원 수요가 많은 곳을 위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미래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누리과정 개정

교육부는 국정과제 구현과 출발선 평등 실현을 위해 2017년 12월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유아교육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이 명시되었다.

이에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반영하여 2019년 7월, 개정 누리과정이 고시되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으로 2020년 3월부터 전면 적용된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 위상과 체계를 갖추어 성격과 인간상을 신설하고 ‘공통과정’에서 ‘공통 교육과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밝힌 미래사회 핵심 역량을 반영한 인간상과 목표를 밝힘으로써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를 확립하였다. 개정 누리과정은 교육내용을 간략화하고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통해 배움이 구현되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의 놀이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여 놀이를 통한 배움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유아와 함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누리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2019 개정 누리과정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 내용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서 성격 명시 • 추구하는 인간상 제시 •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구성 체계 및 교육내용 연계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중심 교육과정에서 유아·놀이 중심 • 교육과정으로의 변화 • 충분한 놀이시간 확보 권장 • 유아 놀이와 배움의 의미에 대한 재이해
5개 영역의 내용 간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을 연령 구분 없이 제시 • 간략화된 내용으로 교사의 실천 지원
교사의 자율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대 강화 경향을 반영하여 교사의 자율성 강조 • 계획안 형식과 방법의 자율화 • 흥미 영역의 운영 방식 자율화 • 5개 영역 통합 방식의 다양화 • 평가의 자율화

개정 누리과정이 2020년 3월 전면 시행되면서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개발한 해설서, 놀이이해자료, 놀이실행자료를 2019년 12월 현장에 보급하였다. 또한, 다양한 놀이실행사례를 제시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참고할 수 있는 놀이운영사례집(5종)을 2020년 2월 새로 구축 운영되는 누리과정 포털(i-누리)에 탑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놀이의 중요성을 반영한 다큐멘터리(놀이의 기쁨) 2편, 개정 누리과정 영상 3편, 개정 누리과정 학부모용 오리엔테이션 자료, 학부모 인식 전환을 위한 가정통신문(‘20.3.~’20.12.)을 2020년 2월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자의 개정 누리과정 인식 제고를 위해 원장(감)을 중심으로 관리자 연수를 비롯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참여형 교사연수(8시간), 원격연수(15시간)를 진행 중이다. 또 2020년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로 현장지원자료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사연수와 컨설팅 매뉴얼 개발·보급 등을 지원한다. 2020년 3월 공통 교육과정인 유아·놀이 중심 「2019 개정

[표2] 2019 개정 누리과정 현장지원자료

- **해설서:**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을 개정 취지에 근거하여 충실하게 해설한 자료
- **놀이이해자료:** 다양한 놀이 사례를 제시하여 유아의 놀이이해를 돕는 자료
- **놀이실행자료:** 유아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놀이 실행을 돕는 자료



누리과정」 전면 시행으로 만3-5세 유아들의 교육격차 해소와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성과와 과제

2019년은 그야말로 명실상부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확대된 한 해이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에 전국 국공·사립유치원이 100% 참여하였고, 에듀파인 1단계 도입도 100% 완료되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통으로 활용하는 누리과정도 미래사회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과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부는 ‘유치원도 학교’라는 명제가 기본적으로 굳어지고 미래사회의 인재양성을 위한 유아교육의 중요성, 출발선 평등의 중요성이 현장에 안착하길 지원하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및 유아교육 현장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유아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②

[표3] 2019 개정 누리과정 연수자료

- **2019 개정 누리과정, 펭수와 함께**
- 놀이하러 배우는 펭수: 부모, 교사, 전문가가 놀이 관찰을 통해 놀이 속 배움의 모습을 발견
- 어서와! 개정 누리과정 처음이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 펭수 질문으로 풀어나가는 자료
- 모든 선생님은 우리 모두의 선생님: 교사의 고민과 실행력에 대한 이해 자료



감염증 예방을 위해 다각적 대책 마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위해 관리 강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에서 확산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 27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하여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월 20일부터 운영하여 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단장 교육부 차관)'을 확대 재편하고, 시·도교육청 및 대학 등 각급 학교에 대응지침을 전파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예방대책반, 중국 입국자 관리 철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중국 후베이 지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 중 의심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무증상자라도 1월 13일 이후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유·초·중·고 및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격리기간 출석 인정)하도록 요청하였다.

교육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의 발표에 따르면, 2월 11일 현재, 중국 후베이 지역 방문 후 별도 의심증상은 없으나 입국 후 14일이 경과 하지 않아 자택에서 머무르는 학생과 교직원은 모두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후베이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만 격리대상이었으나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에 따라 2월 5일부터 중국 입국자 전체로 확대하여 관리 중이다.

또한, 교육부는 유·초·중·고·특수학교의 56.5%만이 2019학년도 학사를 종료한 상태이고 2.7%에 해당하는 564개교는 방학 또는 휴업에 들어갔으며 40.7%(8,356개교)의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11. 10시 기준). 이에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감염병 예방 교육 및 방역 지원, 교육기관 대응태세 점검,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등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확진자 거주지 인근 학교 등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일부 학교는 긴급 휴업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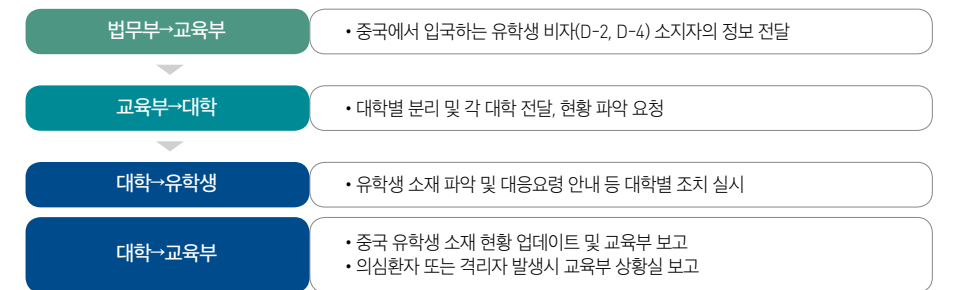
교육부는 오는 2월 말까지의 학사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법정 수업일수 확보를 고려하여 우선 개학연기 및 휴업을 실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법정 수업일수 1/10 범위에서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2020학년도는 학사일정 또한,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감염병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3월 개학 등 세부 지침을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 회의 개최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대학 현장의 위기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월 5일에는 주요 대학 총장 20명 및 5개 관계 부처가 참석한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 회의'를 갖고 오는 3월 대학 개강 시기에 다수의 중국 체류 학생들이 입국할 것에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표1] 중국 → 한국 입국 유학생 입국 정보공유체계 마련



교육부는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하였고, 수업감축, 수업 이수시간 준수, 원격수업 확대, 신·편입학 휴학 등에 대해 탄력적인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대학 졸업식, 오리엔테이션 등 집단 행사는 자제, 연기 또는 철회할 것을 재차 권고 하였으며, 국제관, 기숙사, 도서관, 학생회관 등 학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관리·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표2] 대학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원격수업 확대	-우한 지역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이 가능토록 기준 개정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해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 온라인 수업 개설상한 기준 적용 제외 추진
신입생 휴학	-현재 대학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신입생의 1학기 휴학에 대하여 허가해주도록 대학에 권고
자가격리자 등 출석 처리	-유고 결석 출석 인정 공결 처리 등을 통해 자가격리자 및 입국 지연자에 대한 출석 인정 권고

특히 교육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들을 입국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당국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문의 : 질병관리본부 1339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⑥ 인천광역시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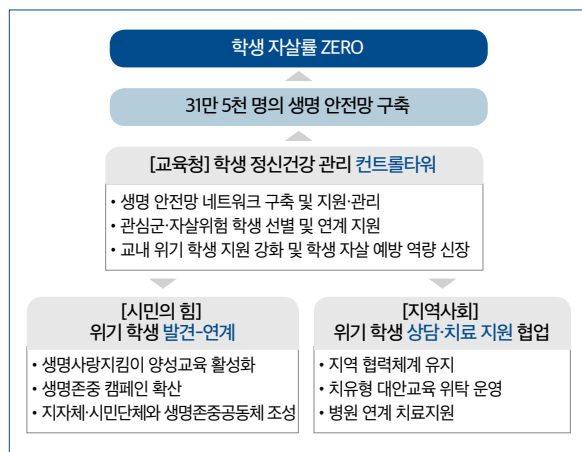
학생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으로 생명 지킨다

누구에게나 생명은 소중하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며 극단적인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웃의 관심과 사회적 지원은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는 청소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 인천시교육청의 '생명 안전망' 구축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학생 정신건강 책임지는 우리는 '컨트롤타워'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 정신건강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누구나 손쉽게 따뜻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 안전망인 '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학생 정신건강 관리부서를 학교생활교육과로 일원화하였으며, 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지원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상담 중심으로 학생 정신건강을 지원하던 것을 상담과 더불어 치료 중심의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한 예방체제로 대전환을 꾀하고 취약계층 가정의 지역 상담센터 및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관리를 해오고 있다.

[그림1] 인천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안전망



위기 학생 발견-연계하는 힘! '생명존중 문화'

먼저, 인천시교육청은 시민의 힘을 통해 위기 학생을 발견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을 활성화하였다. 강사양성 연수를 진행하여 총 69명이 이수를 하였으며, 21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생명존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3시간씩 자살 예방 관련 연수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중·고교 50개교에 학생 눈높이에 맞춘 생명존중 내용을 담은 매직샌드아트 공연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학부모 400여 명이 참석한 생명존중 선언식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생명존중 캠페인을 확산하였다. 학교 밖 학생과 시민을 찾아가는 길거리 캠페인(4회)을 비롯해 시민과 함께 여는 생명존중 포럼, 인천시민 3천 명이 함께한 '생명사랑밤길걷기' 행사를 공동 주최하였다. 그 밖에도 지역사회·시민단체와의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위기 학생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가 학생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전국 최초, 마음건강 치료전문의 배치

특히 주목할 점은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더불어 인천시교육청은 지역사회에 소통을 강화하고 위기 학생을 '상담-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병원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병원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담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마음건강 치료전문의'를 전국 최초로 배치하였다. 주 3회 상담과 주 2회 치료가 이뤄지고 있으며 낮아진 정신과 의료 문턱으로 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가 연계되고 있다. 또, 학교 연계를 통해 적기에 체계적인 진단과 맞춤 치료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월 40명 이상의 학생·학부모 상담 및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초 1~4학년,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를 99% 완료하였으며, 이들 중 관심군 및 자살위험 학생을 선별하고 4,425명의 학생에 대해 지원하였다. 이러한 초기 진단과 개입으로 자살·자해 시도 학생이 전년 대비 급감(36.4% 감소)한 것은 큰 성과로 꼽힌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확대하였다. 정신건강복지센터(10곳), 청소년상담복지센터(9곳), 자살예방센터(2곳), Wee센터(10곳) 등 지역 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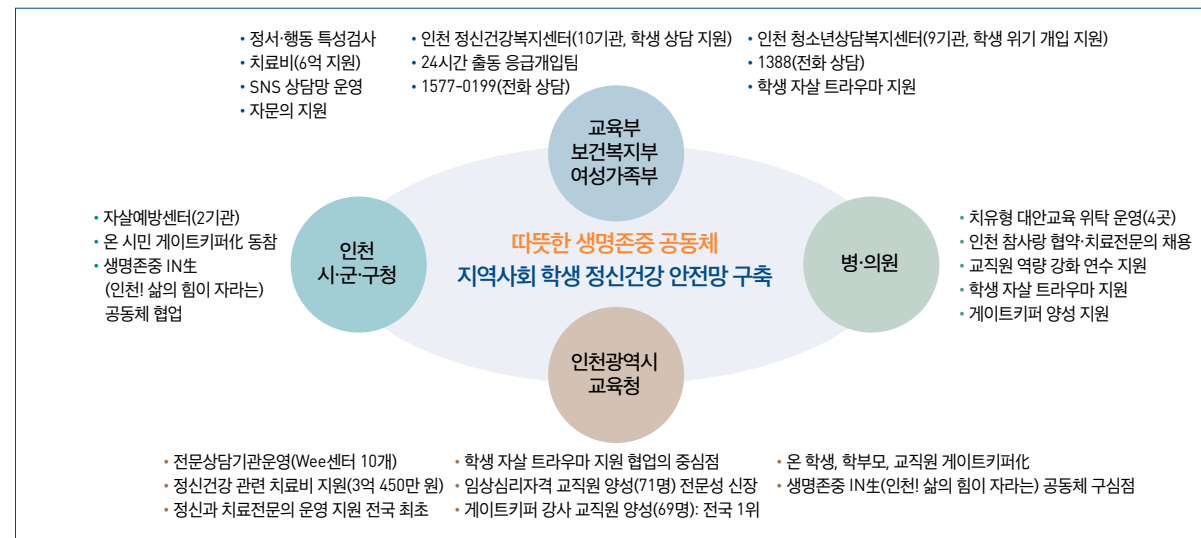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지원, 자살위험 학생 연계 병원 지원, 학생 사망 트라우마 지원, 치료비 지원 등도 해오고 있다.

그 밖에도 치유형 대안학교를 위탁하여 운영하는데, 정서·행동상 병리적인 증상을 보이는 학생의 경우 전문적 치유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병원과 연계하고 있다. 지난해 초등 치유형 대안 교육기관이 처음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를 포함하여 현재 총 4개소의 대안 교육기관이 운영 중이다. 올해에는 4개 기관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학부모의 정신건강 관리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전년 대비 51% 학생이 수혜를 입었다."라며 "생명존중 공동체 활성화로 '생명 안전망'을 정착시키고 위기 학생을 선 발견-상담-치료로 연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모델을 확립하는 한편, 교육부와 연계하여 전국 학생 정신건강 사업에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의 선 발견-상담-치료로 이어지는 학생 정신건강 관리 모델은 지난해 교육부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그림2] 지역사회 학생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모델



2019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성과발표회

공유캠퍼스 등 올해 고교학점제 저변 확대



올해부터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1월 1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2019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교육부는 올해 연구학교 128개교, 선도학교 600개교로 늘리는 등 현장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과발표회에서는 도시지역과 읍면지역 연구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우수사례를 나누어 소개했다. 공통적으로는 △학교의 적극적인 과목 개설 노력 △교사의 수업 개선 의지 제고 △진로 진학 상담 활성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연구학교는 학생 수요조사를 토대로 제2외국어, 교양, 전문교과 등 적성과 학업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확대했다<표 참조>.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5년 새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는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 수치다.”라며 “학교 현장의 변화가 학생들의 실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과 융합 수업,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과정중심평가 실시 등 수업과 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도 이뤄졌다. 전남 중마고 이희민 교사는 “연구학교 첫해였던 2018년도부터 한 해씩 지나오면서 선생님들이 점점 교과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가 확대돼가는 것을 느낀다.”라며 “고교학점제가 안착하려면 선생님들의 인식변화가 더욱 커져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변형 교실, 학생들의 자율 활동과

2020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728개교로 확대
수업 질 개선 등 성과...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필요
교육부, 하반기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발표

휴식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등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에 적합한 학교 환경 조성 사례도 확대됐다. 부산 동성고는 고교학점제형 공간 조성을 위한 TF팀을 꾸리고, 학생과 교사가 원하는 수업을 구현할 수 있는 선진형 교과교실을 구성했다. 충북 단양고에서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프로젝트실, 모둠학습실 등 소규모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생 중심 공간을 만들었다.

학생 수업 선택권 늘어나...지역 격차는 완화해야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앞으로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부분도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드러났다. 먼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지도,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설계·기획 등 교육과정에 관한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고, 관련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올해 대학원 연계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과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 시 지역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사와 강사 수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여건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해 강원 마차고는 같은 지역의 주천고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교생 수 35명, 전체 교사 수 11명인 마차고와 같은 작은 학교들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인근 학교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두 학교는 전교생에게 과목 선택 수요조사를 받은 후, 최소 2명 이상 신청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올해 보통교과 이외에도 바리스타, 드로잉, 심리학 등의 교양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됐다.

마차고 하창호 교사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핵심은 OT(One Team), 즉 하나의 학교가 된 것처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전공교사가 필요한 만큼 지역 전체 교사들의 지원이 필요하고, 화상수업 등의 쌍방향 공동교육과정 도입도 고민해볼 문제”라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 올해 공유캠퍼스 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유사한 공유캠퍼스 제도도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공유 캠퍼스란 학생들이 본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 인근 학교에 개설된 경우 정규교육과정 내

[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비교

	연구학교	일반 학교
학생 선택 이수 단위 편성	79.4단위 (일반학교 대비 19.6%↑)	66.3단위
전문 교과 I 편성	92개 (일반학교 대비 37.3%↑)	67개

(2019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교육부는 올해 연구학교 128개교, 선도학교 600개교로 늘리는 등

현장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서울형 고교학점제’를 재구조화한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 김영선 장학관은 “공유캠퍼스 내 학교는 교과별 특성화 학교로 지정해 각 학교의 교육역량을 높이고,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며 다양성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및 단계적 이행안을 담은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개회식에서 “올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728개교로 확대됐고, 하반기에는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한다.”라며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지역별로 설정해서 고교 간 교류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까지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구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②

[김혜림 교육부 고교학사제도혁신팀장 - 2019년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부 진행 업무]

1. 정책연구 시행	2019년 고교학사제도혁신팀에서 진행한 정책연구가 10개 이상이다. 단순히 수업 선택권을 넓히는 것을 넘어 학교의 시스템·문화·시설이 바뀌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2025년 전면 도입에 앞서 검토할 부분이 많다. 올해에도 여러 연구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정책토론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2. 고교학점제 정책공감 콘서트	고교학점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한 고교학점제 정책공감 콘서트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총 16곳에서 진행됐다. 대구에서 한 학부모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는데, 연구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무슨 수업을 들을지 고민하면서 집에서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다.
3. 연구학교 제도개선 연구회 운영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담당 교사들을 시·도별로 모아 연구회를 진행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올해에도 연구회는 운영될 예정이다.
4. 온라인 홍보 강화	고교학점제 사이트(http://www.hscredit.kr)에 학생과 교사의 참여마당, 수강신청 기능, 관련 행사 소식 등을 탑재했다. 또, SNS를 통한 고교학점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5.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출범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한국교육개발원장과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지난해 11월 구성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목표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며 매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2차 교육자치 포럼

(서울, 경기, 인천, 전북, 충북)

5개 지역 교육감 한 목소리로
“학교를 민주적 자치 공간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최
교육자치·학교자치 방향 및 과제 논의
유은혜 부총리 “교육 거버넌스 개편 등 속도 낼 것”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월 22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교육자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교육자치와 교육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교육자치의 인식과 역량을 높이고자 17개 시·도교육

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기획 운영한 것으로,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1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에서 열린 1차 포럼에 이어 이번 2차 포럼에서는 교원과 교육전문직, 일반직공무원, 교육관계자 등 1,000여 명이 모여 교육자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개회식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전북), 이재정(경기), 조희연(서울), 도성훈(인천), 김병우(충북) 등 5명의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각 시·도별 교육자치 정책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자치의 궁극적 목표가 학교자치임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의사결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다시 또 학교로 이양해 학교가 최종적인 민주적 자치의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은 최소한의 통일성과 최대한의 다양성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교육자치의 법적 제도화를 주장하며 “학교를 자치단체로 두고, 학교가 법인으로서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라며 “학교자치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위법과 충돌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교육자치가 법적으로 제도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교가 최종적인 민주적 자치 공간 돼야”

교육부는 지난 2017년 8월 교육자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출범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 학교 현장 대표들이 모여 교육자치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자협은 지난해까지 총

다섯 차례 열렸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그간 교자협의 성과에 대해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전면 개편과 학교장 인사 발령 시기 조정, 권한 배분 관련 법령 제정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 개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앞으로 구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감 직선제 도입과 혁신교육을 중심으로 현장의 변화가 많이 이뤄졌지만, 국회의 협조가 필요해 입법이 더딘 과제들이 있다.”라고 하며 “올해는 유·초·중등교육 관련 시행령 추진을 비롯해 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 개편 추진 등 미진했던 부분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의지를 내비쳤다. “유·초·중등교육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전체적인 통일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교육부에서는 대학교육·직업교육·평생교육과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것이 유 부총리의 설명이다.

유은혜 부총리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으로 교육자치·분권 가능”

교사들의 무너진 자존감에 대한 주제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0년간 교사로 일해 왔기에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입시 중심 교육과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한 지시에 부딪혀 무너져내리는 것에 무척 공감한다.”라며 “교권 존중 등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교원 평가권의 재구성, 교육과정 재구성 권한 부여 등 교사의 자율권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으로 “고교학점제, 혁신학교 등 그간 현장의 변화는 선생님들의 열정 없이 불가능했다.”라며 “미래교육의 토대를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자긍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교육부에서도 선생님들을 뒷받침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고전 제주대 교수 등 기초강연 나서

기초강연으로는 곽노현 징검다리 대표(전 서울시교육감)가 교육자치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곽 대표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을 불허한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바로 교육자치에 반하는 것이고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자치란 교육 활동이 자주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사의 전문성이 자주성의 근거이자 토대다. 현재는 중앙집권적 방식에 학교장이 학교 운영 전권을 갖고 있는데, 교사가 교육 입법과 행정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전 제주대학교 교수는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현주소를 각각 교육감 직선제와 학교 운영위원회 도입으로 꼽으며, 향후 대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기초조직(교사회·학부모회)의 법제화,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연계 등을 얘기했다.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지역 간 다양성이 심화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교육자치 수준이 시·도단위가 아닌 생활권 단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이 실질적 자치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교육장의 권한을 강화하며 지역 교육 전반에 주민 참여의 길을 열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학교 현장에서 바라본 학교자치를 이야기한 공정옥 고양 낙민초 교사는 “학교에서 교사가 갖는 권한이 없다.”라고 힘줘 말하며 “교사에게 부여된 과도한 행정업무와 표준화된 교과서, 각종 법령 및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학교자치가 멈춘다.”라며 교사의 교육자율권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세션에서는 △교육자치에 대한 제도적 접근 △교육자치와 분권 △교육거버넌스와 협력체제 구축 방안 △학교자치에 필요한 요소 △학교자치 법제화 등 5가지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3차 교육자치 포럼은 2월 13~14일 제주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다. ②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대학-지역, 플랫폼으로 뭉쳐야 산다

지역이 기획·실행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 중심 지역혁신 지원 사업이 2020년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방대학의 대대적 활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학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대학의 혁신이 지역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대학교육 혁신의 새로운 방향

이 사업이 기존의 대학지원사업과 다른 점은 먼저, 각 지역이 지방대학과 지역 간 긴밀한 협업체계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이 개별 대학의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그 효과가 부수적으로 지역에 확산되기를 기대한 것과 달리, 이 플랫폼은 지자체가 대학·기업 등 지역혁신주체들과 함께 지역의 여건과 현안을 심분 반영한 지역혁신 핵심분야를 발굴하고 대학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각 지역은 정보 공유와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대학별로 중앙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수행해 왔으나, 각 사업들이 하향

식·분절적으로 추진되어 그 효과가 기대만큼 높지 못했다. 지역혁신 플랫폼에서는 대학과 연계된 다양한 지역혁신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백을 보완하는 한편, 통합 조정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한다.

대학과 지역을 연계하는 다각적 협업의 장 마련

플랫폼은 지자체, 중심대학, 협업기관의 장들로 구성된 ‘지역협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플랫폼에서는 지역혁신 목표를 고려하여 대학의 지역혁신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핵심분야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하여 선정하고, 부서별 소관 업무 및 대학별 특성화 전략을 고려하여 분야별 지역혁신을 총괄할 ‘지자체 부서’와 ‘중심대학’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대학들은 지역과 함께 발굴·선정한 핵심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지역 내 대학들은 핵심분야를 고려하여 상호 간 역할분담을 진행하고, 각각의 전략적 특성화에 맞게 학사구조 개편·교육과정 개편 등을 추진한다.

지역과 공동 협력하여 지역혁신과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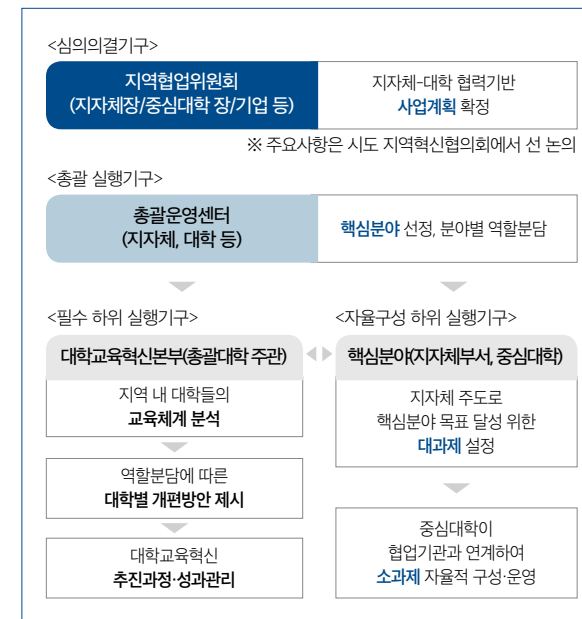
이와 동시에, 대학들은 대학의 혁신이 지역의 혁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 과제들을 수행한다. 핵심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추진과제들을 설정하고, 대학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여 과제들을 수행한다. 이때, 플랫폼에서는 교육부 및 타부처에서 진행 중인 대학 연계 지역혁신 사업들의 현황을 분석하여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과제를 구성·운영한다.

균형위·산업부·중기부·과기부 등 협업 부처 확대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중심으로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 간 연계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 중이며, 앞으로 협업 부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1] 플랫폼 운영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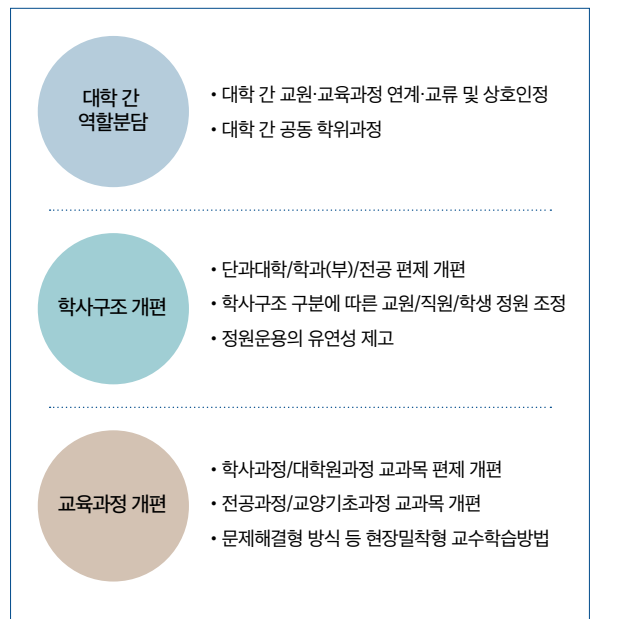


대학의 혁신, 지역의 혁신으로 지역주체 간 협업체계 구축 및 핵심과제 추진 중앙부처-지자체의 대학 관련 사업 간 연계

교육부는 2월 중 부총리와 지자체의 장, 대학의 장, 협업기관의 장들이 참여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수용성을 높인 기본계획을 2월 말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의 역할을 지역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정립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앞으로의 고등교육 정책방향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학과 지역 간 협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으며 사회부총리로서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대학 간, 부처 간, 지역주체 간 협업과 연계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균형위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②

[그림2] 대학교육 혁신 유형 예시





위기상황 속 아이들의 성장 돕는 ‘교육복지의 힘!’

부모의 이혼과 떠돌이 생활, “나는 왜 태어났나요?”

진수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부모님이 이혼했다.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돈도 못 벌면서 어찌다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아빠와 예쁜 엄마가 헤어지기로 한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엄마와 사는 것이 당연한 결정이었다. 엄마는 밤낮으로 열심히 돈을 벌었다. 4개월쯤 되어 한 아저씨가 같이 살기 시작했고 엄마는 재혼했다. 진수는 다시 아빠에게 맡겨졌다. 엄마가 없는 집은 예전 같지 않았다. 집안 사정을 훤히 아는 동네 사람들과 다시 인사하기도 싫었다. 아빠는 진수를 투명한 간 보듯 했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때가 많았다. 어느 날부터 아빠가 보이지 않았다. 고모가 데리러 와서 옷가지를 싸며 크면 말해준다고 했지만 이미 아빠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걸 들었다. 고모 딸인 사촌 동생은 진수와 같은 학교에 다닌다.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한집에 살면서 더 불편해졌고 학교에서 만나면 서로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 동생과 크게 다투었다. 핸드폰 충전기를 잃어버려 사촌의 것을 잠시 빌려 쓰려고 했을 뿐인데 자기 책상을 뒤졌다며 다른 것도 가져가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원치 않게 처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밝고 당당하게 자신의 재능으로 이웃에 빛을 발하며 함께 내일로 나아가도록 하는 교육의 또 다른 모습이다.

않았냐고 화를 냈다. 그 후 진수는 경기도에 사는 할머니 댁으로 옮겨졌다. 억울하고 화가 났다. 낯선 도시, 낯선 공기, 낯선 소음, 낯선 하늘. 중학생이 된 진수는 집에 들어설 때 할머니의 표정이 싫었다. 공부? 꿈? 아무 생각이 없다. 그저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엄마 아빠를 만나 따져 묻고 싶다. 그런데 전학 온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과 ‘특별한 외식’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조금씩 무언가 마음속에서 살아나는 것 같다. 세상에나! 어른이, 선생님이 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두서없는 내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다니!

전교생이 다 아는 나는 우리 반 ‘꿀찌’

몸집이 자그마한 수아는 웃음이 귀여운 아이다. 꽃과 동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친구들은 수아를 멀리한다.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다가도 수아를 보면 흠어지기 일쑤다. 내가 뭘 잘못했나? 수아의 아빠는 마흔이 넘은 나이에 동남아 여자와 결혼을 했고 수아를 낳았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수아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몇 년 전 다시 새엄마가 왔다. 그리고 인형 같은 남동생이 태어났다. 늙은 아빠를 대신해 새엄마는 열심히 돈을 벌었고 수아는 방과 후에 동생을 돌보며 집안일을 거들었다. 어릴 때부터도 한국말이 어눌했지만 갈수록 말과 글 때문에 수업시간에 참여하고 따라가기가 어렵다. 반에서 수아가 공부를 제일 못한다는 건 전교생이 다 안다. 선생님에게 얘기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자신을 바라볼 때 짓던 선생님의 난감하고 불쌍해하는 표정을 생각하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나는 왜 친구들과 다르게 태어났을까? 학교에 안 가면 안 되나? 그런데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와서 엄마 아빠를 만나면서 생활이 달라졌다. 수아가 가고 싶은 미술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동생은 돌봐주는 곳에 맡기게 된 것이다. 다음 토요일에는 엄마랑 단둘이 여행도 간다고 한다!

대를 잇는 빈곤의 늪에서 꿈을 키우는 ‘소라’

김 선생님은 학교를 나서며 소라네 집으로 향한다. 발걸음이 무겁다. 소라네는 대를 이은 오랜 빈곤의 늪에서 온 식구가 앓고 있다. 소라의 외할아버지는 기계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사고로 앓다가 돌아가셨다. 외할머니도 빌딩청소와 식당 주방일, 전단지 돌리기 등 안 해본 일 없이 평생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다. 키 낮은 집들이 빼곡한 길 좁은 산동네에서 사는 동안 소라의 엄마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소라를 낳았다. 소라네 집에는 책이나 신문, 잡지는 물론, 그 흔한 종이도 잘 나오는



불편도 찾아보기 힘들다. 집에서 들리는 소리는 오직 텔레비전 소리뿐이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다 마는 햇빛은 좀처럼 집 밖으로 나서지 않는 소리 엄마의 얼굴을 잠깐 밝혀주다 떠난다. 소라는 욕심이 많다. 하고 싶은 것도 많다. 얼마 전에 난타동아리 발표회에서 한껏 끼를 뽐냈다. 그렇지만 엄마는 학교에서 실패한 자신의 경험 때문인지 교사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소라의 교육에도 관심이 없다. 전화에도 응대가 없고 현관문을 두드린 지 며칠 만에 열어준 소리 엄마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좌절, 수치심, 역겨움 같은 것들이 어지럽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오늘도 문을 열어줄지 모르겠다. 새로 시작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소라의 참여를 부탁하면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밝히고 싶다.

취약 가정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난한 집 아이들은 길지 않은 삶 동안, 있었다라면 좋았을 것들의 결핍과 없었으면 좋았을 것들의 과잉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 가난한 아이들, 아니, 가난한 집 아이들은 학교에서 성공하기 힘들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낮은 성취는 이후 성인기의 취업과 소득, 결혼, 건강, 수명 등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통계자료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피곤하다. 이제 금수저나 흙수저 같은 말은 너무 흔해서 시시해 보일 정도이다.

부모의 교양이나 문화, 사회경제적 자산은 양육 태도, 교육적 관여, 사교육 등을 통해 자녀의 성격 형성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취약한 가정의 아이들이 다양한 결핍이나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대한민국 헌법이나 교육기본법뿐 아니라 국제법이라 할 수 있는 UN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교육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육 불평등 해소 첫걸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 불평등과 관련된 자료가 공공연하게 조사, 수집되고 이러한 고민이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기억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고 바로 이듬해인 1997년에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지원을 받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이는 곧 교육의 불평등과 교육 병리적 현상의 증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민정부가 이어지면서 불평등과 사회복지 같은 사회적 이슈를 다룰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나섰다. 참여정부 시기 교육부는 교육격차의 해소 및 평등의 보장을 추구하며 교육복지정책으로 ‘국민 기초교육수준 보장’, ‘교육 부적응 및 불평등



해소’,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개선’ 등의 3개 영역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교육복지네트워크를 통해 학생에게 전인적 개입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당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 15년여를 지내면서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이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교육복지의 개념 또한 계속 진화되고 있다.

교육복지가 교육에서의 복지 이념 실현, 복지적 실천을 통한 교육목표 달성이라고 할 때 교육복지의 목적과 과정 모두에서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 나란히 놓인 컵 중 몇 곳에 물이 적다고 그곳만 골라 물을 더 채워 넣으면 될 거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교육적이지도, 복지적이지도 않다. 가난한 가정 학생들을 따로 불러 모아 그들에게만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교육 불평등이 얼마나 해소되겠는가.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어야 할 수치심과 낙인감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생이 학교에서 무언가 성취하려면 친구들과 함께 더 많이 경험하고 친구, 교사로부터 인정받는 등 학교공동체 속에서 존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이제 학생이라면 누구나 그가 가진 장애나 만성질환, 가정의 빈곤이나 사회 정서적 소외 등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 또는 자라나면서 한두 번쯤 겪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수업 시간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유의미한 교육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습, 정서·심리, 문화·체험, 보건·복지 등 전인적 관점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가정이나 마을에서도 안전하고 교육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학교의 문을 열고 가정, 마을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한다.

위기상황 속에서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는 삶

진수와 수아, 소라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잘 살펴야 한다. 아이들은 비슷한 고민과 기대를 품고 살지만 가난하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고 제대로 도우려면 더 오래, 자세히, 한 명 한 명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은 진수와 담임선생님의 특별한 외식, 교육복지사의 수아를 위한 재능 계발 후원, 소리 엄마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가능하게 해준다. 교육복지는 운이 나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들을 돕는 공짜 프로그램, 자선사업이 아니다. 예측하지 못한, 원치 않게 처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밝고 당당하게 자신의 재능으로 이웃에 빛을 발하며 함께 내일로 걸어가도록 하는 교육의 또 다른 모습이다. ②

만18세 선거권 갖게 된 청소년들 “제일 좋은 선거교육은 투표 아닐까요?”



김윤송



정유정

Q

만18세 선거권이
확정됐다.
소감을 말한다면.

이제 만18세 청소년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장 올해 4.15 총선부터 투표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만18세 청소년 약 14만 명이 선거권을 얻게 됐다. 그러나 선거권을 얻게 된 청소년들의 기쁨도 잠시, 한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모의 선거 교육을 불허하는 등 학교 선거교육의 방향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청소년이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만18세 선거권을 갖게 된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정유정(18)씨와 김윤송(17)씨는 학교 밖 청소년들로 이번 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도한 시민단체연합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청소년 활동가다. 정씨는 4.15 총선 당일 기준 생일이 지난 만18세로 이번에 처음 투표도 가능하게 됐다.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청소년 인권단체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두 사람은 선거연령 하향을 위해 2018년 지방선거 전 43일간 국회 앞에서 집회하고, 300명의 국회의원을 일일이 찾아갔다. 이번에 마침내 얻게 된 만18세 선거권은 그들이 그토록 외쳐오던 “청소년 참정권의 첫걸음이자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였다.

지난 1월 29일, 서울 양재역 인근에서 청소년보다 ‘청소년 인권단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는 두 사람을 만나 만18세 선거권에 관한 소감과 기대를 들어봤다.

김윤송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변화가 서서히 느껴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청소년 선거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선거연령이 고작 한 살 하향된 것이지만, 만18세 선거권은 청소년 참정권의 첫걸음이자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다. 학교뿐 아니라 가정, 일터, 마을 등 어느 곳이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정치에서 대변될 수 없다면,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죽음’ 아닐까.

정유정 첫 소감은 ‘진짜 될 줄 몰랐는데, 이게 되네?’였다. 얼떨떨했다. 더 많은 청소년 활동가들이 이번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선거연령 하향이 아니라 ‘선거연령 제한 완화’라 표현하고 싶다.

Q

주변 친구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궁금하다.

김윤송 당연히 긍정적이다.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신기해하기도 하고 좋아한다. 학생들 중에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 더군다나 만18세 선거권은 ‘나’와 관련된 일이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2월에 이번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해 간담회가 열리는데, 신청한 청소년만 50명이 넘었더라. 청소년들도 이번 만18세 선거권을 계기로 정치와 선거에 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Q
선거연령 하향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나.

정유정 2017년 9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출범했다. 이후로 계속해서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져 왔지만, 2018년 지방선거 전 43일간 집회를 했던 것이 가장 이슈가 된 활동일 거다.

김윤송 청소년 운동은 그동안 관심을 받은 적이 많지 않은데, 특히 삭발식 때 언론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다. (김씨는 이날 삭발한 당사자였다.) 집회를 마무리한 후 주요 정당과 ‘선거연령 하향 조속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맺은 성과가 있었다. 이후 300개의 원실을 일일이 찾아가 선거연령 하향에 관해 묻기도 하고, 현판을 달아달라 요청하기도 했다. 청소년 선거권이 그냥 이뤄진 게 아니라, 그 뒤에는 힘들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Q
학교 선거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김윤송 선거법 위반 등 불법적인 행위를 알려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되지 않는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가능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하다. 모의선거 교육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직접 투표해보고 겪는 게 제일 큰 교육 아닐까. 청소년 선거권에 관심 있는 나도 총선에서 정당 투표를 따로 한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다. 성인들도 따로 찾아보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해봐서 아는 것 아닌가.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 자체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정유정 정작 청소년에게 참정권은 주어지지 않았는데 ‘선거할 때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건 크게 와닿지 않는다. 그 시간에 정당가입 연령 폐지나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웃음).

Q
학교에서의 선거운동은
어떻게 생각하나.

정유정 선거운동 연령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총선에서 투표권이 있더라도 선거운동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17세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후보자가 학교에 와서 청소년에게 직접 투표를 호소하고 선거운동하는 모습도 생각해본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광경 아닌가. 여태껏 대부분의 후보자는 청소년의 부모에게 호소했다.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공약들이 나오지 않을까.

김윤송 정치인들이 표심을 사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는 선거연령 하향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Q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해 학교가 정치적
공간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다.

정유정 청소년들은 언제나 정치적 주체였다.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몇 있는 점 중 하나는 학생들이 교사의 잘못된 점을 알고 짚었다는 것이다. 보통 청소년이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은 편향됐고 그게

Q
청소년 유권자로서
기대되는 정책은
무엇인가.

자신의 정치적 색깔이다. 청소년에게만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청소년을 얼마나 무정치적 존재로 바라보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이제 청소년이 투표권을 가지는 것이 상식이 될 것이고, 이를 반대하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가지 못하는 사람이 될 뿐이다.

정유정 다시 한번 청소년 참정권 연령을 더 하향하는 것. 이른 시일 내에는 힘들겠지만, 청소년들에게 힘이 생겼으니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 이외에도 학생인권조례에 강제성을 부여한 학생인권법과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다.

김윤송 아무래도 청소년 인권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탈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간다. 최근 친구가 지내는 쉼터에 관리 직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유정 부모를 피해서 쉼터에 가도 부모동의서를 요구하고, 10시 이후에는 잠질방이나 PC방 출입을 금지해 오히려 더 위험한 곳을 떠돌기도 한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고 금지하는 것은 임시방편 아닐까.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을 위한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 데 관여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한다.

Q
그렇다면 바라는
후보자 상은?

정유정 국회가 국민을 대변했으면 좋겠다. 국민의 반이 여성이면 국회의원의 반이 여성이어야 하고, 국민 100명 중 3명이 농부라면 국회의원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누구나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당들은 엘리트, 혹은 화제가 될 만한 사람들을 내세운다.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어도, 진짜 내 삶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를 원한다.

김윤송 물론 공약도 보겠지만, 그것만으로 후보자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사람의 역사를 보고, 과거의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어떻게 성찰하고 고쳐왔는가를 살필 것 같다. 또,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태도가 되어있는지도 중요하다.

Q
만18세 선거권이 이끌
변화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와 바람은.

김윤송 청소년 인권 운동의 인지도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대중에게 청소년 운동이란 것이 존재하고, 청소년들에게 제한된 권리가 아직 많다는 걸 많은 사람이 다시금 주목해줬으면 좋겠다. 이번 만18세 선거권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 성과였던 것이 많이 알려졌으면 한다.

정유정 이제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이 있으니 요구사항들이 정책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 선거연령이 더 낮아진다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고등학교 입학식에 ‘입학을 축하합니다.’라는 플래카드 하나씩 걸지 않을까?(웃음) 앞으로 정치인들이 더 청소년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 ☺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① 수업자료로 만든 교사의 창작물 내가 만든 수업자료 저작권자는 누구일까?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소개한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첫 시리즈로 수업목적으로 창작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소개한다.



학기 초를 맞아 많은 선생님이 저작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지에서는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을 주제로 3회에 걸쳐 학교 내에서 주의해야 할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 ① 수업목적으로 창작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 ② 학교 홈페이지 및 폰트 등에 대한 권리
- ③ 유튜브 활동 시 저작권 피해를 줄이는 법

교사는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제한사항인 25조에 따라 학교 교육인 '수업목적'에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인용해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경우 면책이 된다.



개인 창작주의 vs 업무상 저작물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다. 교사가 창작하는 저작물에는 △수업자료 △행정업무자료 △교사 개인 자격으로 만든 창작물 등 3가지가 있다. 교사는 학교 혹은 교육청 소속의 직원이다. 교사가 직접 창작했다 해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기획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교사가 아닌 학교 혹은 교육청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시험문제, 강의안, 교재 등의 수업자료와 알림장, 안내장, 홈페이지 게시물 같은 행정자료 등 일반적인 학교 업무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자는 교사가 아니라 학교 혹은 교육청이 된다. '개인 창작주의'가 원칙이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저작권법 제9조) 규정을 두고 있다.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고 업무지시를 받아야 하며 별도의 저작권 계약이 없어야 한다. 학교와 교육청에서 기획하는 업무에 맞춰 만든 수업자료와 행정자료 등은 대부분 '업무상 저작물'이다. 하지만 수업자료라 해도 학교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교사가 개인적으로 만든 창작물은 개인 저작물로 볼 수 있다.

또한, '업무상 저작물'인지 교사 개인의 저작물인지에 따라서 저작자가 달라지는 만큼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 등에 따른 권리관계가 달라진다. '업무상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까지이지만 개인 저작물은 창작 순간부터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로 권리 기간이 다르다.

학교 교육목적의 범위는 대면 수업만 해당

교사는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제한사항인 25조에 따라 학교 교육인 '수업목적'에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인용해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경우 면책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업목적의 범위다. 수업목적의 범위는 학생들과 장소와 관계없이 대면해서 직접적인 수업을 하는 것만 해당한다. 수업을 위해 만드는 안내장, 알림장, 현수막, 홈페이지용 저작물은 행정자료다. 특히 이 행정자료를 만들면서 정식으로 구매하지 않은 기업용 폰트를 사용할 경우 법적 분쟁이 되기도 한다. 이미 수백 곳의 초·중·고가 분쟁 중이다(2회에서 자세히 소개함). 단, 수업목적을 위해 만든 자료도 실제 학생들과의 수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업목적 자료가 아니다.

수업자료의 저작권이 교사 본인이든 업무상 저작물로서 학교에 있던 인터넷에 공유할 때는 반드시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하며 복제방지, 접근금지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교사가 외부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고 창작한 수업자료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수업 자료의 주요 부분을 타인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든 경우, 인터넷에 올리거나 책을 제작해 배포하려면 저작권자의 의지에 따라야 한다. 수업자료를 다시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해 인터넷에 업로드(전송)할 때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첫째, 불법이용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로 수업을 받는 학생을 제외하고 접근제한과 복제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학부모도 제3자며 사이트 로그인 등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둘째,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셋째,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3가지를 정리해보면 사실상 폐쇄된 사이트에만 타인의 저작물로 만든 수업자료를 올려야 한다.

수업자료 공개 시 ‘일반 저작권법’ 준수

하지만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로 만든 수업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영화, 드라마, 사진, 게임, 미술작품, 어문 등 타인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창작한 수업자료를 학교 교육목적을 벗어난 범위로 활용할 경우가 문제다. 예를 들면 외부 출판사의 시험문제를 학교 시험문제로 일부 출제하고 시험해설 풀이를 다시 출판하거나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하는 경우다. 이는 저작권법 25조의 예외사항을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 이때는 ‘업무상 저작물’로서 학교가 저작자든 교사 개인의 저작물이든 일반적인 저작권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든 수업용 저작물을 출판, 전시, 공연, 유튜브 업로드 등 다양한 형태로 외부에 공개한다면 처음부터 △공정 이용(저작권법 35조의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28조) △출처표시(저작권법 3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일반 저작권법에 맞게 제작하는 것이 좋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일반적인 권리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든 자료를 수업목적이 아닌 방법으로 외부에 공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적용해야 할 내용이다. 교사가 만든 이 수업자료가 비영리 목적인지, 영리 목적인지, 인용해 쓴 부분이 육하원칙 등의 사실인지 창의적인 내용인지, 질적 양적으로 얼마나 가져다 썼는지, 그리고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 대체효과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작권의 침해 유무를 판단한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따르지만, 실제 분쟁에 들어가면 그 과정이 길고 시간적 정신적 소모가 많아 교사로서는 정신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작권자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고 마무리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처음부터 타인의 저작물을 주로 사용해서 만든 수업자료를 원래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공모전의 저작권, 응모자가 갖는 쪽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에서도 수천 건의 공모전을 진행한다. 교육청 등 교사 대상의 공모전도 다양하다. 가장 바람직한 공모전의 선택 기준은 응모작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응모자가 저작권을 가지며 주최사는 해당 공모전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만큼의 이용허락 권한을 갖는 쪽으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공모전 주최사들도 기본 개념을 몰라 관행적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면 ‘모든 수상자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라는 것은 상금을 받고 모든 저작권 산권을 양도한다는 말이다. 이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공모전은 신중하게 응모해야 한다. 이 부분은 학생 대상의 공모전도 예외가 아니며 주의해야 한다.

정리하면 교사가 타인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든 수업자료는 학생들을 직접 교육하는 수업목적 자료로 활용한다면 일반적으로 괜찮다. 그러나, 수업자료의 저작권이 교사 본인이든 업무상 저작물로서 학교에 있던 인터넷에 공유할 때는 반드시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하며 복제방지, 접근금지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유튜브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는 제3자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작권법에 맞게 수업자료를 제작해야 한다. 출처표시와 함께 공정이용 방식으로 수업자료를 만든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단, 모든 저작권자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에 저작권침해가 아님에도 분쟁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작권에 주의해서 스스로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수업자료를 만들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탁 쌤과 산골 학교 아이들의 좌충우돌 한 해 살이 위로 받은 기억

일주일 뒤에는 졸업.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자. 아이들을 반반으로 나누고, 중간을 막으로 가렸다. 막 이쪽 편 아이들에게 임길택의 시 <저녁 한때>를 내밀었다. 아이들이 시의 소재들을 소리 내어 표현하기 시작했다. 막 저쪽 편 아이들은 귀 기울여 듣는다.

“사각사각사각...”

“톡톡톡톡...”

“화르르르화르르르...”

저쪽 편 아이들에게 물었다.

“어디일까?”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국밥집이요.”

“바다요.”

“화장실.”

정답을 말하는 대신 나는 시를 천천히 읽었다. 이번 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읽을 시다.

저녁 한때

뒤들 어둠 속에 / 나뭇짐을 부려 놓고 /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는 무 한쪽을 예쁘게 깎아 내셨다. //

말할 힘조차 없는지 / 무쪽을 받아든 채 / 아궁이 앞에 털
벅 주저앉으시는데

환히 드러난 아버지 이마에 / 흘러난 진땀 마르지 않고
있었다. //

어두워진 산길에서 / 후들거리는 발끝걸음으로 / 어둠길
가늠하셨겠지. //

불 타는 소리 / 물 끓는 소리 / 다시 이어지는 어머니의
도마질 소리

그 모든 소리들 한데 어울려 / 아버지를 감싸고 있었다.

아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돌아가며 한 연씩 읽고, 눈 감고 한 줄씩 읽었다. 의자 하나를 앞에 놓고 아이들한테 물었다.

“아버지 해 볼 사람?”

윤서가 앞으로 나와 의자에 앉았고, 다른 아이들이 질문을 시작했다.

“나무 벨 때 힘들었나요?”

윤서가 대답했다.

“땀 많이 흘렸어. 젓 먹던 힘까지 냈어.”

“왜 나무를 해요? 연탄 때면 되잖아요.”

“산골이라 연탄이 없어.”

“왜 아궁이에 불을 때서 밥을 해요? 전기밥솥으로 하면 되는데?”

“과학 기술이 발전이 안 돼서 전기밥솥이 없어.”

“웃은 왜 떨어진 거 입어요?”

“돈 있으면 우리 애들 먹을 거 사야지. 웃은 아무거나 입으면 되고.”

“왜 아들은 일 안 시키고 아빠 혼자 일해요?”

“애들이 아직 어려서. 응애 응애 기어 다녀. 막내가 한 살인데.”

“집에 식구들은?”

“아내가 있고 아들 셋에 딸 하나.”

“왜 밤까지 나무를 했나요?”

“.....”

질문을 주고받는 동안 시의 분위기, 배경, 인물의 얼굴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하나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했던 지난 1년
나도 아이들 덕분에 행복했다.
많이 배웠고, 많이 위로받았다.



“각자 이 시 속에 나오는 무언가가 되어 보세요.”

주인공 역할을 맡은 윤서가 무대 한 귀퉁이, 산에서 콩차 콩차 나무를 하기 시작했다. 나머지 아이들은 이 시에 나오는 무엇들, 나무, 도마, 아궁이, 솥, 별, 개, 새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 가서 멈췄다. 별이 된 아이는 의자 위에 높게 올라가서 휴대폰으로 불빛을 냈고, 개는 뒤뜰 마당에 엎드려 왕 왕 짖었고, 부엌 아궁이가 된 아이는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올렸다 내렸다 하며 화르르르 불을 태웠다.

콩차콩차 나무를 베던 아버지가 후유, 땀을 한 번 닦고 베어낸 나무를 지게에 올리고 일어섰다. 나뭇짐 지고 걸어가는 아버지의 길을 별이 된 아이가 핸드폰 불빛으로 비추어 주었다. 숙인 채 걸어오던 아버지가 뒤뜰에 털썩 나뭇짐을 내려놓았다. 3초 뒤에 강아지가 짖기 시작했다.

“왕왕왕. 왜 이렇게 늦었어. 힘들었지? 얼른 들어가서 쉬어.” 부엌으로 들어선 아버지가 도마 앞에 멈춰 섰다.

“톡톡톡톡. 수고했어. 이거, 무 먹어.”

아버지가 솥을 건드렸다.

“보글보글 뽀뽀뽀 이젠 좀 쉬어. 내가 맛있는 음식 해 줄게.”

아버지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모든 사물이 한꺼번에 소리내기 시작했다.

“활활활활.”

“반짝반짝.”

“호으으으.”

“톡톡톡톡.”

사물들은 소리를 내며 아버지를 감싸듯 천천히 다가와 멈

췌다. 멈춘 상태에서 각자 위로가 되는 대사를 되풀이했다.

“힘들었지. 고마워.”

“고생했어. 이제 쉬어. 쉬어.”

“6년 동안 고생했어.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라는 말은 왜 나오는지. 이제 며칠 뒤면 초등학교 생활을 마치는 아이들한테는 위로의 말인가 보다. 다 같이 얼음, 하고 사진을 찰칵 찍었다. 그리고 모여 앉아 시에 대해 한마디씩 하고 수업을 마쳤다.

“위로의 힘은 매우 강력해요.”

“매일 힘든 몸 이끌고 일하지만 가족들의 위로가 있어서 건디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가 무 깎아서 주고, 솥에서 물 끓는 소리가 위로하고, 아궁이에서 불타는 소리가 위로하니까.”

“우리 아빠도 맨날 힘들게 일하는데 전 아빠가 오실 때 휴대폰만 한 거 같아요.”

“6년 지내면서 저도 친구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많은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했던 지난 1년 나도 아이들 덕분에 행복했다. 많이 배웠고, 많이 위로받았다. ㉠

필자는 1968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같은 마을에서 살며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현재 전교생이 39명인 조산초등학교 산골 아이들과 산과 바다를 누비며 작지만 확실한 교육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학교상담 전문가가 전하는 우리 아이 심리 습관적으로 욕하는 명진

말끝마다 습관적으로 욕을 사용하는 아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친구 혹은 학급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난무하는 나쁜 단어들 때문이기도 하다.

시도 때도 없이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문제

중학교 2학년 남학생 명진은 얼핏 보면 모범생같이 생겼지만, 욕을 너무 잘해서 학교에서 유명하다. 명진의 욕설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담임선생님마다 제발 욕하지 말라고 주의를 시켰지만 소용이 없었다. 명진은 친구들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별의별 욕을 동원해서 상대를 억누르는 방법을 체득한 후, 이 좋은(?) 방법을 버리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점점 숙달되었다.

일이 터진 그 날은 모둠 수업을 하는 시간이었다. 같은 모둠이 된 여학생들이 “우리는 따로 할 거야.” 하면서 명진을 피해 새로운 조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명진은 “니네들 마음대로 해. 하지만 선생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조를 만들면 안 될걸.” 했다. 그러나 여학생들은 “우리가 알

아서 해. 신경 끄라고” 하면서 나가더니 한참 후에 돌아와서 “포스트잇과 색종이, 전자석을 좀 나눠줘. 모둠 활동을 할 수 없단 말이야.” 했다. 명진이 “우리 조에서 쓸 것도 없어. 너희들이 나갔으면 알아서 구하든가.” 하자, 서로 분위기가 싸해졌다. 여학생들은 재료가 없어서 실험하지 못하게 되자 부득이 명진의 조로 돌아왔지만, 한숨을 쉬면서 조별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명진이 “왜 한숨을 쉬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자 한 여학생이 “넌 전에도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 했다. 그러자 명진은 “이런 씨X, 존X 병X 같은 게, 웃기고 앉아 있네. 내가 언제?” 하고 욕설을 했다. 여학생이 움찔하자 그는 “내가 말을 함부로 한다고? 그래. 난 가정교육이 안 됐어. 니X 엄마는 된장찌개 장인이야.

“욕을 심하게 하면 애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게 제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런 아이를 어찌면 좋단 말이나!

됐어?” 했다. 여학생이 충격을 받고 울기 시작하자, 여학생들이 모여 들어서 “왜 그래?” 하고 걱정해주기 시작했고, 남학생들은 남학생들대로 모여 들어서 “뭐야, 뭐?” 하면서 대항하다 보니 교실엔 두 개의 둥근 원이 생겼고, 이렇게 되자 조별수업이고 뭐고 끝이 났다.

진단

교과 선생님이 1차 현장을 수습하고, 담임선생님이 사건을 인계받은 후, 명진은 상담실로 위탁되었다. 상담 선생님이 명진에게 문제의 사건을 들은 후 물었다. “그 여학생이 제 마음대로 조를 만들어서 나갔다가 돌아왔다 하니까 억울했겠다. 그렇지만 왜 욕을 했니?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잘했어도 결국 네가 나쁜 사람이 되는데?” “제가 좀 욕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화났다고 다 욕을 하진 않는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초중고생들의 욕설 사용실태와 태도에 관한 연구>(2010. 양명희, 강희숙)를 보더라도, 욕을 하는 이유는 습관이 돼서(초등 12.6%, 중등 29.4%, 고등 33.4%), 남들이 사용하니까(초등 29.6%, 중등 16.7%, 고등 9.8%) 남들이 나를 만만하게 볼까 봐(초등 18.6%, 중등 5.6%, 고등 1.6%)니까, 욕하는 성질보다는 습관인 탓이 더 크다.

명진은 상담 선생님과 몇 차례 상담했는데, 그 결과 밝혀진 내용은 이랬다. “엄마도 선생님도 저보고 양보하면서 살라 하시지만 그러다간 다른 애들에게 무시당해요. 그럴 때 욕을 하면 남자애들은 갑자기 소심해지고, 여자애들은 울어요. 욕을 심하게 하면 애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게 제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면 먼저 가서 사과해요. 잘못된 게 없으면 끝까지 사과 안 해요.”

명진은 이미 욕의 효과에 대해서 논문을 써도 될 정도로 명인이 되었고, 사후처리 방식도 나름 숙련되어서 여태 그 많은 욕을 하고도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겨지지도 않았다. 이런 아이를 어찌면 좋단 말이나!

상담 선생님은 명진의 부모님을 학교에 모시고 명진의 욕철학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긴 얘기 끝에 아빠가 말씀하셨다. “지금 보니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았네요. 저는 아들이 말을 안 듣거나 공부를 안 하면 욕을 하면서 혼을 냈지요. 선생님께서 명진의 말을 안 듣고 무조건 확 눌러버리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느냐고 물으시는데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상담 선생님이 말했다. “화 안 내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진은 욕이 문제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남을 눌러서 이기는 승패법을 익혔다는 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윈윈법을 가르쳐 주시면 욕은 필요 없을 겁니다.”

지도

그날 이후 아빠는 명진과 시간을 내서 놀아주면서 명진의 말을 귀담아듣고 부드럽게 반응해 주시기 시작했다. 명진도 항상 무섭도록 압도하시던 아빠가 편안하게 다가오자 밝아졌다. 시간이 지나자 명진 엄마가 “이제야 제가 바라던 가족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더 바라는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 무렵 명진은 양보하면 무시당하던 신념을 버리고 ‘친구 체면도 살려주면서 나도 밀리지 않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졌다. 명진아, 욕을 써서 기어이 친구를 이기기보다 표준말로 서로 어울려 지내는 게 더 행복하지 않니? 어른들도 물론 욕을 안 써야 하지만 말이야. ②

겨울 도화(桃花)가 꽃 몽우리를 터뜨리고 있는 땅,

발왕산

시뻘건 해를 앞두고 새해 다짐을 한 게 엇그제 같은데 시간은 어느새 한 달을 훌쩍 지나있다. 지난해의 여운을 채 벗어나지 못한 일월을 지나온 세월은 이월을 향해 달리고 있다. 겨울의 끝자락,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 세워본다. 추위가 다 가시기 전에 겨울의 서늘함에 기대 의지를 다시금 다져야겠다. 더 유연해지고 더 굳건해지기 위해 겨울을 맨눈으로 마주해야겠다. 이 계절이 온전히 겨울이 되어 있는 곳, 투명한 겨울을 통해 나를 비춰낼 수 있는 곳, 그리하여 묵은 때를 벗고 나를 나로서 서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간다. 눈을 맞으러 동계올림픽의 열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평창을 다시 찾는다. 하얀 눈에 잠겨 있다 보면 열기인지 열병인지 모를 가슴의 화기를 식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충만해졌다가 금세 제풀에 고개를 숙이는 이 발작 같은 열정을 길들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발이 푹푹 잠기는 눈길이다. 그림자. 허영디허연 눈이 눈(目)에 사무친다. 산자락을 따라 무작정 달려온 길 끝에 발왕산이 있다.





1

평창 진부면과 도암면 사이에 있는 발왕산은 해발 1,458m의 높이를 자랑한다. 이곳은 산에 여덟 왕(八王)의 뿔자리가 있다고 한 도승의 말에 따라 팔왕산으로 불리다가 이후 왕이 나오는 산이라 하여 발왕산(發王山)으로 불리게 되었다. 용평리조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산은 겨울이면 스키를 타러 온 여행객과 일출 맞이에 나선 이들로, 봄가을이면 트래킹과 등산을 하는 사람들로 붐빈다.

2020년 겨울, 스키 인파는 올해도 용평리조트를 찾아든다. 보드와 스키를 든 이들이 설원을 미끄러지듯 내려오며 겨울의 도래를 알리온다. 막힘없는 질주가 드디어 눈을 가르며 달릴 수 있는 계절이 왔노라며, 손꼽아 기다리던 눈의 계절이 이르렀노라며 눈의 열기를 전한다. 색색의 옷으로 설원을 물들인 스키 인파를 눈에 담으며 케이블카에 오른다. 탑승장에서 출발하여 발왕산까지 왕복 7.4km에 이르는 이동 거리는 통영에 이에 두 번째로 길다.

케이블카 아래로 설경이 펼쳐진다. 눈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과 드문드문 놓인 오두막과 눈길과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 사람과 자연이 빚어낸 풍경이 묘한 평온을 선사한다. 바람에 하늘거리는 나무와 눈꽃을 피워낸 눈과 하얗게 물든 설산의 장관이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온다. 창을 열고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눈동자에 맺히는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는데 자연의 풍광을 온전히 담아내기는 아무래도 힘든 일인가 보다.

1 눈꽃 핀 발왕산
2 정상에 오르는 길에 마련된 왕수리부엉이 쉼터



2

하얗다.
사방이.
눈(雪)이라는
보석이
반짝
빛을 발한다.

케이블카에서 내려선다. 하얗다. 사방이. 주변이 온통 하에서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눈을 밟는다. 뽀드득거리는 폭신한 냉기가 발을 타고 올라온다. 눈으로만 보던 눈(雪)을 발로, 손으로 매만진다. 하얀 입자 위로 햇빛이 흩날린다. 투명하게 반짝이는 그 무엇이 눈을 찔러온다. 눈동자에 박힌 눈(雪)이라는 보석이 반짝 빛을 발한다. 고개를 들어 산을 둘러본다. 대관령 산자락을 수놓은 풍차와 눈에 잠긴 산과 퍼렇디퍼런 하늘. 겨울 도화(桃花)가 꽃 몽우리를 터트리고 있는 이곳이 무릉도원이 아니라면 어디를 무릉도원이라 할 수 있을까.

이대로 풍경 안에 멎어 있을 수만은 없다. 산을 올라야겠다. 눈을 만나러. 하얗디하얀 눈의 결정을 담으러 산을 타야겠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목 나무 군락지에도 하얀 숨이 내려앉았다. 실물 같이 그린 노송(老松)이 새들을 불러들였다는 솔거의 손이 지나가기라도 한 걸까. 시선이 지나간 곳곳이 탄식을 자아내는 풍광으로 채워진다. 색을 지워내는 것이 백(白)의 속성인 것을. 하얀색의 비움이 묘한 평화를 불러온다. 그 평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속이 부대끼고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더 채우지 못하면 어쩌나 했던 조바심 때문이었음을 깨닫는다.

왕수리부엉이 쉼터에서 숨을 고른다. 바람길을 지나며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한다. 길은 어느새 정상에 가까워져 있다. 눈옷을 입은 나무 아래 서서 돌아온 길을 되돌아본다. 바람이 밀어주고 눈이 끌어주고 벗들이 손을 잡아주었기에 정상에 이를 수 있었으리라.

구름 위를 걷듯 눈 속을 헤쳐나간다. 하늘을 지붕 삼아 시간을 반추해 본다.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버티고 있는지 그 끝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기를 기대하는지 자문한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환희의 발자국이 새겨지고 미소 띤 얼굴이 눈을 지나간다. 사람이다. 나를 이 순간 이곳에서 있게 한 것은 사람의 온기일 것이고 인연의 섭리일 것이다.

흩날리는 눈이 쌓여 눈송이가 되고 눈송이가 눈꽃을 피우고 눈꽃이 세상을 하얗게 물들인다. 그 새하얗이 감동을 전해온다. 인향만리(人香萬里)라고 했던가. 사람 또한 눈과 다르지 않으리라. 인고의 세월과 매 순간의 정진과 더불어 감의 온기가 전하는 투명함이 세상을 인향(人香)으로 물들이리라. ‘넉넉한 품’이라는 올해의 목표를 하나 더 더하며 산 정상에서 김수영 시인의 시를 읊조린다.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하얀 바람이 메아리가 되어 가슴에 안긴다. ㉠

NEWS BRIEFING

2020. 02.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석박사급 인재 연간 19,000명 양성



교육부가 지난 2월 6일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공고했다.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은 2020년 9월부터 7년간, 연간 4,080억 원 규모로 연간 19,000 명의 석박사급 대학원생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교육연구단(팀)에 지원하는 미래인재 양성사업 및 혁신인재 양성사업과 대학 본부에 지원하는 대학원 혁신지원비로 구성된다. 이번에 신설된 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 대학원의 안정적 학업·연구 전념 환경 조성을 위해 석박사 과정생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지원금을 인상한다. 또한, 우리나라 연구의 질적 성과를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연구업적에 대한 질적 평가를 80% 수준으로 확대하며, 2023년 중간평가 시 연구 성과를 100% 질적으로 평가할 것을 예고하였다.

그간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았던 대학원 교육에 대해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한 대학원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신설·지원하여 대학 본부 차원의 제도 혁신을 지원한다.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의 교육연구단(팀) 선정 절차는 3월 초 예비신청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최종 확정 결과가 발표된다.

삼각산고, 제1회 학교협동조합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제1회 학교협동조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사회공헌과 참신한 방법으로 학교협동조합을 내실 있게 운영한 5개 학교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였다. 학교협동조합이란, 학교를 기반으로 공통의 경제·사회·문화·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조직을 말한다. 현재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상을 수상한 서울 삼각산고등학교 학교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대상 문구·도서 판매, 더불어 새싹기업 축제 개최, 교내 '먹고 가게' 운영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조합원 수도 상대적으로 많아 참여율이 매우 높다.

최우수상은 매점·카페를 운영하면서, 모니터링, 시장조사, 모의운영 등 지속적인 수익을 위한 탄탄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한 경기 현암고등학교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생태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서울 국사봉중학교가 수상하였다.

우수상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교협동조합의 활동을 포함시켜 전교생이 참여한 강원 금병초등학교가, 장려상은 다른 협동조합과 연계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서울 구로고등학교가 수상하였다.

청년들 위한 취·창업 지원 늘어난다



교육부는 청년들이 진로결정과 취업을 위해 겪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진로교육 대상을 청년까지 확장하고 이들을 위한 대학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신설한다. 관련 예산도 2019년 2,324억 원에서 올해는 7.8% 상승한 2,505억 원으로 늘어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그간 청년들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진로·직업선택과 취업 준비 과정에 정부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진로결정부터 취·창업 역량개발과 사회 진출 이후 후학습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이며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대학진로탐색학점제'는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자유롭게 진로탐색 활동을 설계·수행한 것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올해 시범운영(10개교) 이후 운영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생의 해외 진로·직업경험의 기회도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업 취약계층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파란사다리' 사업의 경우 올해 수행대학을 추가 선정(6개교)하여 총 1,600명에게 단기 해외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취·창업을 위한 역량개발 중심으로 대학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체 연계교육, 창업 관련 교육과정 등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대학과 산업체가 맞춤형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여 채용을 협약하는 취업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창업교육 거점대학 2개교 선정,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를 발굴해 창업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가 R&D사업 지원금 부당 집행 267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교육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지난 2019년 5~11월 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2016~2018년 3년간 종료 사업 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 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이었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건을 포함하여 총 267건(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 원)을 적발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 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향후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2

지난호 독자 리뷰



[특별기획_과정 중심 평가의 의미와 교사 역량 강화 방안] 단위학교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교수-학습 과정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 및 학교 수준의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 및 학교 수준에서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니터단 김진숙**

[특별기획_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왜 중요한가?]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은 유기적인 교육활동이다. 교사는 수업디자인과 관찰, 그리고 피드백을, 학생은 기획과 수업참여로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이 '수업의도'와 '성장'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어난다.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종합예술이며 행위예술이다. 동시에 교사는 다른 교사들과 함께 수업을 디자인하고 평가를 한다. 그렇기에 동료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체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학교 문화가 필요하다. **모니터단 김정수**

[교사상담실 '매너리즘' 극복하는 선생님들의 자세] 노력하지 않는 교사는 이제 학교를 관두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보다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같이 답을 찾아 나가려고 노력하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사들 또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심리적인 압박감보다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과 함께 자신도 성장하고 나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듯하다. **모니터단 윤현아**

EVENT

2월호 <특별기획>을 읽고
'기초학력 보장의 길은 ()이다'의
빈칸을 자유롭게 채워주세요.

다음 달 5일까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 02-2271-0992

지난호
당첨자

이아를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김진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유민영 진주시 소호로19번길

발행일 2020년 2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한상신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성부
사무관 양서연 주무관 박형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대변인실 323호

편집실

편집장 이순이
기자 양지선 (객원)김혜진
사진 김경수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교육현장에 수정·보완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상시 업그레이드되는 스마트한 교과서 칠 관리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교육부/시·도교육청/발행사와 함께)

현장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교과서 활용 정보 제공



전문적 검토 | 업무 내실화 | 시스템 개선 | 지원체계 확립

각 메뉴마다 제공되는
입력창에 검색어를
기입하세요.
교과서 수정·보완 내용 및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
하게 파악,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드는 수정·보완 시스템

인터넷 주소창엔

포털사이트 검색창엔



TIOS 상담전화 **1566-8572**